



JCI 인증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2016 0910

Vol. 119

Smart Choice Best Care

인하대병원

특집_ 간호본부 Medical Point_ 신생아 선천성 장 기형 Today INHA_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장기이식의 현주소_ 생명의 불꽃 살리는 신장 이식팀



웃는 당신

당신, 날 보고 웃네요
 찻잔 둘 덩그러니 놓여 있는
 낡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오래전에 그랬듯이
 당신, 여전히 날 보고 웃네요
 어느새 창밖에는 눈발 가득하고요
 나는 아직 못한 말이 있는데
 아니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두고 온 말들은 머릿속을 맴돌고
 나는 이렇게 아픈데
 여전히 아무 말 못했는데
 빙그레 미소를 머금은 당신,
 내 앞에 웃고만 있네요

곽효환 | 시집 '슬픔의 뼈대' 중에서



인하대병원

Sept
 +
 Oct 2016 Vol.119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인하대병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건강 한 걸음

특집	간호본부
04	Opening Message
06	간호본부 TALK! - 행복한 '진인간호'를 꿈꾸다
10	보이지 않는 소중한, 이 자리에 있어 빛나는...

12	Medical point	신생아 선천성 장 기형
16	Today INHA	인하대병원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사랑 두 걸음

18	어디까지 가봤니	인천 골목이 품은 이야기 9 - 십정동
22	Special People	시인 곽효환
24	INHA Post	메디컬 청탁금지법

나눔 세 걸음

26	장기이식의 현주소	생명의 불꽃 되살리는 신장 이식팀
28	Change the INHA	의료서비스 디자인을 통한 환자중심 서비스 혁신
30	INHA Focus	소아 정맥 간호관리
32	인하심포	벽화 그리기
34	톡톡 약물상담	콜레라,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로 예방!
35	병원 탐방	인일요양병원 윤 중 병원장

INHA NEWS

36	병원소식	인하대병원 소식
38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39	Info Desk	건강교실, 교육/전시/공연 안내, 파랑새 소식



표지 간호본부 - 나이트게일 talk! talk!



꿈을 향한 도전의 결실

1996년 인하대병원의 출범과 함께 첫발을 내디딘 간호부가 개원 20년을 맞아 그 위상에 맞게 간호본부로 승격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이는 그동안 간호본부의 800여 명 간호사의 열정과 헌신이 토대가 되었고 미래의 꿈을 향한 도전이 결실을 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간호본부는 병원의 발전과 변화에 매우 역동적으로 대응하였고, 이는 모든 간호사 한분 한분의 숨은 땀과 노고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발전은 우리 병원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여 주고, 우리 모두의 자긍심을 높여주리라 확신합니다.

지역 내 최고 병원이 되는데 간호본부의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며, 우리 인하대병원이 진정 사랑받고 존경받는 병원이 되는 여정에서 간호본부의 열정과 수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하대병원 행정부원장 전상기

간호본부 승격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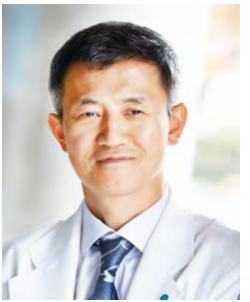
간호부에서 '간호본부' 로 한 단계 승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우리 병원에서 간호부가 그동안 수고해오신 점을 고려하면 간호본부로의 승격이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병원은 2013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주도적으로 해왔고 지금도 상급병원 중에서 유일하게 간호간병서비스를 선도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간호간병서비스를 참여할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간호본부의 협력과 노고가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은 올해 7월에 JCI 3주기 인증을 통과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간호본부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졌고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간호본부의 새 출발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병원발전을 위해 간호본부의 많은 협력과 활동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하대병원 진료부원장 안승익



간호본부 새 출발!

1996년 인천 최초의 대학병원이라는 기대와 사명감으로 시작한 인하대병원과 함께 첫발을 내디딘 간호본부는 2016년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간호본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는 간호사 모두의 노력을 통해 신뢰받는 간호본부의 역할과 책임을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하며, 이 기쁨을 간호본부의 모든 직원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화합과 소통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성장해온 간호본부는 간호의 핵심가치를 실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창의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제도 정착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다양한 봉사활동과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국가 및 세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하대병원 간호본부는 20년의 짧지만 소중한 역사를 기반으로, 으뜸 간호로 감동주는 간호본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간호본부 2030 미션인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인류의 건강과 인성을 위하여 최상의 간호를 실천한다'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간호본부장 이수연





시트 한 장부터 생명의 마지막까지 돌보는 것, 행복한 ‘전인간호’를 꿈꾸다

웃어주기만 하는 친절함 보다 ‘실력’을 갖추어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자신의 ‘지식’을 다그친다. 그리고 일상의 힘들보다 환자의 고통을 어루만질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내게 말한다.

참석자_ 박혜옥(중앙공급실 수간호사, 간호부장 역임) / 조효임(심혈관계 집중치료실 수간호사)
서영민(간호본부 교육담당 수간호사) / 임정원(동8병동 간호사) / 최다희(서15병동 간호사) / 김정선(중앙전담간호사)

일시_ 2016년 9월 20일 장소_ 18층

기획_ 김옥주 차장 / 홍보팀 진행·정리_ 이정희 에디터 사진_ 송인혁 실장 / 다뷰스튜디오

아름다운 그녀들, 나이팅게일의 TALK! TALK!

격세지감을 느끼는 간호본부의 역사

진행자 인하대병원 간호본부 승격을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간호본부 승격을 맞은 우리의 지향 가치가 무엇인지 편하게 이야기 나누어 볼까합니다.

박혜옥 내년 정년을 앞두고 있는 저로서는 퇴직 전에 간호본부로 승격되어서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98년 IMF의 힘든 상황에도 보조 인력의 일을 해가며 힘을 모았던 일, 99년 신규간호사를 인턴으로 받으며 어려운 시기를 넘은 기억도 떠오릅니다. 힘들더라고 병원이 어렵다면 항상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왔던 간호부라서 인정받았던 거 아닐까요?

김정선 바로 제가 IMF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세대입니다. 98졸업 선배도 대기발령, 저희는 무한 대기였죠. 그때 저는 인하대병원과 인연이었는데 1년 정도 근무하던 중 모교에 입사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미 제일 힘든 1년을 견디었고 실습을 했던 본교이기는 하나 또 새롭게 눈물을 흘리면서 다녀야 할 것 같아 인하대병원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실마 내가 뭐 10년 이상 다니겠냐 했는데 어느덧 15년차가 되었어요.

또 보호자와 결혼도 하게 되어서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괜히 이런 얘기 하나까 일은 안하고 다른 일만 한 것처럼 생각할까봐...(일동 웃음)

조효임 인하대출신으로 98년 입사했는데 당시도 30명밖에 채용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임신을 하면 나이트 근무를 하지 않고, 분만 후 3개월 휴가가 끝나면 육아휴직으로 연결합니다. 저는 막내 낳을 때도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그 때는 임신 중에도 나이트 근무를 했어요. 근무환경이 그 만큼 좋아진거지요.

박혜옥 일도 열심히 했지만.... 참 열심히...(일동 웃음)

최다희 간호본부로 승격했다고 하나까 말 자체가 커지는 느낌이예요. 규모가 커지면서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으로 빛나는 나이팅게일의 손길

박혜옥 정부의 큰 사업에 부합하는 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니다. 대학병원에서 하는 것이 처음인데다 시범사업으로 나름 성공했고 우리 병원도 대외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죠. 입원한 환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입원생활을 위해 주력하는 게 우리 간호본부의 임무입니다. 이 임무를 잘해낸 결과 일반인에게도 긍정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간호본부 승격은 병원 측의 더 잘하라는 격려이겠죠.

조효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좀 더 전문화된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회복도 빠르고 만족도가 높죠.

김정선 제가 이 자리에 온 의미일 것 같은데요, 우리 병원도 전문분야 간호사가 하나둘씩 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상처 전문, 저처럼 종양전문 그리고 소아정맥담당 이렇게 세 분야의 전문 간호사가 있어요. 전문 간호사는 병원 어디든 찾아가서 서비스해주는 시스템인데 큰 규모의 대학병원에서는 많이 운영되고 있죠. 저희 병동도 타 병원들 못지 않게 잘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더 발전할 거예요.

서영민 전문화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호업무 특성상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관련 지식을 소화해야 하고 간호사의 자기계발과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간호본부에서는 연간계획을 세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 어떻게 치얼업(Cheer up)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간호사를 위한 간호’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행복한 간호사가 환자를 행복하게 간호합니다!

박혜옥 매년 신규간호사를 뽑으면 출신학교가 100개 이상 최근 140개까지 다양합니다. 표준화된 교육을 안 하면 우리 업무를 제대로



박혜옥 | 중앙공급실 수간호사, 간호부장 역임



서영민 | 간호본부 교육담당 수간호사



김정선 | 중앙전담간호사



임정원 | 동아병동 간호사



최다희 | 서15병동 간호사



조효임 | 심혈관계 집중치료실 수간호사

할 수가 없죠. 또 신규 때 눈물 난다고 한 것처럼 '나 이거 계속해야 하나, 그만둬야 하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게 도와주는 치얼업(Cheer up)이 필요한 거죠.

서영민 간호사가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간호받는 사람도 행복 하죠. 간호본부가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지를 물었어요. 그래서 여행 등을 통해 재충전 할 수 있도록 '장기휴가제도' 라는 치얼업(cheer-up) 활동을 시도했어요.

사실 여행 준비하는 시간만큼 행복할 때가 없잖아요? 과거에는 3교대 근무, 또 내가 쉬면 다른 사람이 나와 일해야 하는 미안함 때문에 간호사에게 긴 여행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임정원 저희 병동은 1년 안에 거의 모든 간호사가 장기휴가를 다녀 오는데 8~9일 정도 쉬니까 다른 병원에서 부러워하죠. 다녀 온 간호사를 보면 에너지가 그만큼 차있는 게 보이니까 그 자체가 좋더라고요.

조효임 휴가가기 전에 휴가에 대한 기대와 설렘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 근무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최대한 장기휴가를 간 사람은 건드리지 않고 조율합니다.

최다희 저는 계획이 없어서 장기휴가를 신청한 적은 없지만, 1년에 한 번씩은 챙겨주셔서 장기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서영민 이제는 장기휴가제도가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죠.

환자에게 받는 감동

진행자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선 서17병동은 환자 생일에 케이크를 들고 축하노래를 부릅니

다. 혈액종양내과 병동이라 우울할 수도 있어서 기운내시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지요. 또,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간호사들이 귀엽게 꾸미고 케이크를 들고 병실마다 도는데 반대편 병동 환자도 부러워해서서 이제는 양쪽 병동 중앙에 포토존으로 꾸며 놓아요. 환자와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포토존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자랑하는 행사입니다. 한 번은 다른 병동 환자분이 저를 찾으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환자분은 액자를 꺼내시면서 '맞네.' 하시는 거예요. 항암치료를 시작하던 1년 전 많이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손잡아주고 사진 찍어준 것이 고마워서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더 감동이었죠.

진행자 그렇게 느닷없는 감동, 그래서 15년째 하고 계시는 거죠.

김정선 그러니까요~~~ (일동 웃음과 박수)

임정원 간혹 메이저 수술 후 병동으로 올라오는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하룻밤 만에 수술 부위에서 배어나온 피와 각질 등으로 시트는 엉망이 돼요. 그래서 깨끗한 시트로 바꾸어서 다음 간호사에게 인계한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호자가 칭찬카드를 쓰신 거예요. 밤새 투약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간호보다 시트 한 장 같이준 간호사의 사소한 일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온 거죠. 저희가 일상적으로 해주는 작은 것으로 감동을 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도움, 당연한 간호서비스

서영민 지금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시트 체인지를 간호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학교에서는 간호사의 일이라고 배웠으나 그동안 현장에서는 간병인이 해왔는데 간호간

병통합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그런 것이 모두 간호사 영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그것을 실현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전인간호'가 되는 것이라고 봐요.

박혜옥 그러고 보니 저도 오랜 기억이 나네요. 중환자실 근무를 하던 친구였는데 환자의 대변을 치우는데 동아리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문이 레지던트가 되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순간 창피하고 이런 일 하려고 어렵게 공부했는는 생각에 속상했다는 거예요. 누구든 자기 오물을 맡기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환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간호사도 더 긍지를 느끼고 오래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영민 환자에게 필요하다면 필요한 도움을 주고 혼자서 할 수 있는 환자에게는 교육을 통해 스스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간호의 목표입니다. 얼마 전 과독간호사 기사를 읽었어요. 그분들은 당시 상당한 엘리트층인데 시체까지 닦았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나며 동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독간호사 선배님들은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듣고 화내셨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돌보던 환자를 마지막까지 잘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냐고 반박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담당했던 환자 중에서도 마지막에 토혈을 하시며 돌아가셨던 분이 계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 얼굴에 혈액이 많이 묻어 있었는데 보호자분이 보게 할 순 없어 모두 닦아 드렸죠. 고민의 여지가 없었어요.

최다희 저도 소화기내과에 있다 보니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간이 안 좋으신 분들도 출혈이 심하거든요.

서영민 담당간호사로서 그 일을 하기 싫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죠?

내가 마땅히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최다희 네, 그럼요!

진행자 안 그러면 혼나겠어요(일동 웃음). 멋지십니다.

어려움의 접점에서 용감·단결·도전하고 맞서다

조효임 여러 평가에서도 그렇고 사스, 메르스 때에도 접점에서 용감하게 선 우리 간호사였고 목표가 세워지면 불평도 있겠지만, 단결해서 나가는 힘은 대단한 거 같아요.

김정선 지난해 '예지회' 주관으로 송년회를 했어요. 20주년을 맞아서 1기~20기까지 간호사 20명이 치어 리딩을 하는데 배경으로 간호본부의 역사 영상이 나올 때 기분이 몽클했어요. 한 살부터 스무살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봐요. 이런 열정이면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행자 예지회는 무엇인가요?

김정선 간호본부 상조회 같은 건데 우리 간호사 인원이 8백 명이네요. 식구가 워낙 많다보니 서로 잘 모르기도 하고 경조사를 챙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예지회에서는 경조사는 물론 간호사의 생일, 신규 간호사를 위한 축하선물 증정과 같은 활동을 하죠. 그리고 작년에는 8백 명이 한자리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송년회를 했어요.

박혜옥 간호본부가 병원 내 간호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성격이라면 예지회는 그 현장에 있는 간호사의 마음을 토닥여주고 응원하는 성격인거죠. 일을 하다보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환자를 위한 가장 좋은 일인지를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간호본부가 더 힘들고 일이 많았더라도 환자를 위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따르고 잘 유지한 것이어서 지금의 인정받는 간호본부가 되지 않았을까요. 앞으로도 우리 후배들이 잘 해줄 거라 믿어요.

서영민 지금까지 간호부를 이끌어 주셨던 선배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이수연 간호본부장님을 중심으로 더욱 화합하고 병원발전에 기여하는 간호본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쏟아지는 의료지식을 공부해야 하고,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환자와 함께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매일 다짐한다.

지식만으로 하는 것은 진정한 돌봄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녀들.

우리가 행복할 때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서로 보듬으며 감성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그녀들은 환자 옆에서 행복하기를 꿈꾼다.

보이지 않는 **소중함**, 이 자리에 있어 **빛나는...**

하나,
가정간호사업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는 '가정간호'

병원에 소속된 가정 전문간호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정간호'이다.



가정전문간호사로 근무한다는 것은 의료진이나 다른 동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치료적 행위와 문제 해결을 해야 하며 다양한 능력이 요구된다. 교통, 날씨, 작업 환경 등이 병원 내 간호사들과 다른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은 고되고 힘들다.

47세 여자 유방암 말기 환자 보호자는 이렇게 고백한다. 의료장치를 부착하고 있어 집에서 치료 받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며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어 고맙다며 눈시울을 적신다. 욕창간호를 받고 있는 환자분은 감사의 표시를 꼭 하고 싶으며 고추장을 싸주기도 하고 고구마, 계란을 삶아 내주시기도 한다.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를 간호하는 것은 사실 유쾌한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간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밑에서부터 내가 하는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따뜻한 환자들의 인정 때문인지 가정전문간호사의 일터는 생계가 아닌 소명이 되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로 나의 속을 채워 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값진 일이며 감사이고 축복이었다. ●가정간호 문의 032)890-3590, 010-3437-2114

가정간호내용
비위관 및 위루관 관리, 경관영양법 교육/장루 및 방광루, 정제도뇨관 관리, 욕창 간호 및 각종 상처관리/중심정맥관 간호, 수액 요법, 인슐린 주사요법/말기 질환자 통증관리 및 호스피스 간호 등

절망 속 희망, 혼자라고 느낄 때 내어주는 한 번의 따뜻한 손은 가장 찬연하다.
빛이 되는 단 한 사람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질은 안개 속을 걸어도 두렵지 않으리라.
인하대병원 간호분부 소속 간호사,
임상현장이 아닌 곳곳에서 빛나고 있는 그녀들이 있다.

둘,
암상담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힘이 되기를

암환자와 가족에게 상담과 교육을 통해 치료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암진료상담실이 있다. 암 상담간호사는 충분한 임상경험을 가진 암환자 고위과정 교육을 이수한 전문간호사이다.

전날 과음 탓인지 술냄새가 코를 찌르는 항문암 진단을 받은 60대 중반의 남자 환자가 기억난다. "제가 암이래요. 특별히 아프지도 않고, 치료를 받을 만한 형편도 안 되고, 치료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여기가 보라고 해서 왔어요."



긴 상담 후 암 다학제 통합진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알렸고, 여러 교수님들의 협조로 빠른 치료를 시작했다. 또한 본원 공공의료사업지원단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치료 기간 동안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통해 금주 및 치료 부작용 관리를 돕고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격려했다. 6개월여의 치료를 마치고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났다. 환한 얼굴로 "평생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간다운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눈시울을 붉히시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다. 결과가 좋을 때 보람을 더 느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이지만 암치리에 있어 결과가 항상 좋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이 필요한 암환자들에게 상담과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 지지하고 서로의 삶의 일부로 녹아들어 미약하나마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도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이다.

●암 진료상담 문의 032)890-3600, 3638

셋,
남구돌봄의 집

빨간 매니큐어만 고집하고, 마사지 받으러 달려오는 어르신 손 흔드는 미소는 하나!

인하대병원 외래특수간호팀은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자 인하대학교 간호학과와 연계되어 있는 남구 치매 주간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주 1회 방문하여 네일케어, 피부마사지와 같은 미용 봉사활동과 혈당, 혈압 측정을 통한 건강체크, 건강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한다.

또한 계절에 맞는 आय회 및 산책, 송편 빚기, 영화관람, 캐롤 연주회 연습 등 특별한 행사에도 참여한다.

치매 어르신이 대상인 봉사라서 처음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망설였지만, 이야기를 듣고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빨간색 매니큐어 만을 매주 고집하는 어르신, 피부 마사지를 받기 위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어르신, 매번 같은 질문만 반복하는 어르신,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는 어르신 등 다양한 에피소드가 벌어지기도 한다.

남을 위해 베푸는 봉사라고 생각했지만 프로그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손을 흔들며 미소 짓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서로 주고받는 작지만 의미 있는 나눔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으로 기억된다.



넷,
말벗도우미

“간호사가 딸 같아~

말동무도 해주고 아픈데 봐줘서 고맙지!”

인하대병원 간호사들은 2013년 3월부터 의료전문인으로서 가진 작은 재능을 홀몸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고자 찾아가 돌보는 말벗도우미 자원봉사를 해오고 있다.

2014년 4월 인하대병원과 중구, 중구보건소가 '우울 노인 협력 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총 60명의 간호사가 관내 홀몸 어르신 등 80명을 선정해 말벗이 되어 주고 건강을 체크하는 어르신 말벗도우미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은 우울 어르신 가정방문과 전화 방문으로 우울 정서 관리는 물론이고 전문지식을 통한 질병 상담, 건강 체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는데, 이는 빈곤과 질병, 가족 상실로 우울 증세를 보이는 노인들의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인천의 경우 2013년에 비해 2014년 전체 자살률은 낮아졌지만, 이 기간 노인자살률은 13%나 늘어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80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60, 7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우울 경험자가 세 번째로 많아 고령 및 홀몸 노인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절실한 형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들이 수시로 어르신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 주고 질병 상담과 건강을 체크해 어르신들의 우울증세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봉사에 망설였던 젊은 간호사들도 오랫동안 사람과의 대화가 끊겨 정에 목말라 하는 어르신들에게 '딸 같은 간호사들이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고 오랜 질환도 관리를 해주어 고맙기만 하다'는 어르신들의 반응에 모두 보람을 느끼며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신생아 선천성 장 기형

신생아 선천성 기형 중 외과 영역에서 치료하는 질환은 매우 다양하지만 주로 식도부터 항문에 이르는 소화기관의 선천성 기형을 소개하겠습니다.

소화기관은 신생아가 모유나 분유를 먹고 소화 흡수시키고 배설시키는 기관으로 이 부분의 선천성 기형은

보통 막힘증으로 통로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증상이 일어납니다.

임신 중 산모의 양수과다증, 아기가 침을 못 삼킴, 담즙을 포함한 구토(노란 혹은 초록색 소화액 포함), 복부 팽만, 태변배출 지연 등의 이상소견을 보일 때 의심하게 되고, 일부 상부 식도 위장관 이상은 임신말기에 진단되기도 합니다.

이 질환들은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며 대표적 질환인 식도폐쇄, 소장 폐쇄, 선천성 거대결장, 항문폐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_ 최윤미 교수 / 소아외과



식도 폐쇄

식도 폐쇄는 식도 기형 중에 가장 흔한 질환으로 약 4,000명의 출생아 중에서 1명 정도 발생하는 질환이다. 태아가 발생할 때 위쪽 식도와 아래쪽 식도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장관의 연속성이 끊어진 질환이다. 식도 폐쇄에는 약 90%에서 기관과 식도가 연결된 기관 식도루(trachea-esophageal fistula)를 동반하고 이러한 기관 식도루에는 5가지 종류가 있고(그림1) 그중에서는 위쪽 식도가 막혀 맹관을 이루고 아래쪽 식도는 기관과 연결되어 기관 식도루를 형성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30-50% 정도에서 다른 장기의 기형을 동반하는데 동반되는 증후군 중 가장 흔한 것이 VACTERL association(척추, 직장·항문 심장, 기관, 식도, 신장, 사지 이상)이다.

산모에게 양수과다증의 병력이 있고 아기가 입과 코로 거품과 분비물을 지나치게 많이 뱉는 경우, 첫 수유와 동시에 기침, 호흡 곤란이나 청색증이 유발되면 식도 폐쇄를 의심할 수 있다. 수유를 하면 증상이 더 심해지며 기관 식도루가 있어 폐를 손상시킬 수 있는데, 아래 기관루를 통해 흡인 되는 위 내용물이 기침, 빠른 호흡, 무호흡 등을 유발한다. 기관 식도루가 있으면 공기가 복강 내로 들어가 복부 팽만을 보이고, 기관 식도루가 없으면 배가 쑥 들어가고 검사를 통해 장내 공기를 볼 수 없다.

식도 폐쇄를 동반하지 않고 기관 식도루만 있는 경우는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기관 경축과 반복성 흡인 폐렴이 주증상인데 진단이 수일 혹은 수개월 늦어질 수 있다. 진단은 신생아가 조기에 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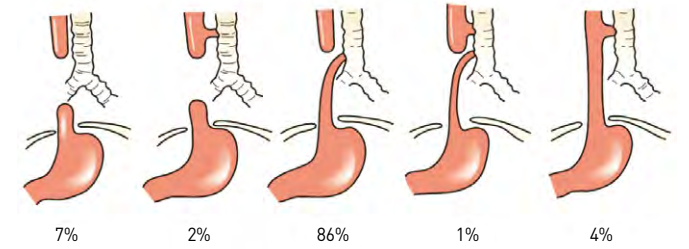


그림 1 식도폐쇄 - 기관 식도루(trachea-esophageal fistula)

곤란이 있고 입위관(입을 통하여 위까지 내려가는 관)이 위까지도 달하지 못하면 식도 폐쇄를 의심 할 수 있다. 단순 흉복부 X선을 촬영하여 식도 맹관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고, 복강 내 공기의 유무를 통하여 기관 식도루가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기관지경 검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식도와 기관의 연결부위를 찾을 수도 있다. 육안적으로 사지의 기형이 동반되는지, 단순 흉복부 X선 촬영으로 척추에 기형이 있는지, 초음파나 다른 영상학적 검사(CT, MRI 등)를 통해 신장이나 심장의 기형이 동반되는지 등을 진단해야 한다.

수술하기 전에는 기도를 확보하여 이물질이 흡입 안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 할 일이다. 똑바로 눕히기보다는 상체를 30도 이상 세워서 역류를 방지하고 예방적 광범위 항생제를 같이 사용하여 흡인성 폐렴을 막는다. 관을 이용하여 식도를 자주 흡인해 주어 식도의 내용물이 폐로 흡인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수술은 우측 갈비뼈 사이로 절개하여 기관 식도루를 폐쇄한 후 식도끼리 연결시켜 준다. 해부학적 이유, 다발성 기형의 존재, 미숙아, 극심한 폐 합병증 등의 이유로 수술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우선 기관 식도루 폐쇄와 위루 형성술을 시행 후 식도끼리 연결해준다.

조기 진단과 치료로 생존율은 90% 이상이다. 대부분 정상적으로 생활하나 첫 5년 동안 영아기에 합병증이 많고, 특히 동반된 심기형이 있으면 사망률이 증가한다. 수술 후에 연결부위에서 유출, 협착, 재누공 형성, 위식도 역류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협착 발생 시에는 풍선 식도 확장술이 필요하다.



그림 2 소장폐쇄 - 복부 X선에서 특징적인 풍선 같은 두 개의 공기음영이 관찰



그림 3 소장폐쇄 - 상부 소장을 확인 후 대장조영술로 대장이 가는 것을 확인



그림 4 선천성 거대결장



그림 5 항문폐쇄 - 고위 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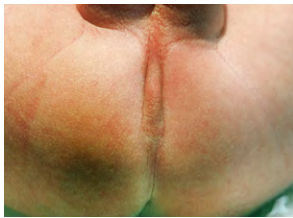


그림 6 항문폐쇄 - 저위 기형

소장폐쇄

소장폐쇄는 장전체가 열려있는 관형태가 아닌 한 군데 이상이 막혀서 통로로 역할을 못하는 질환이다. 십이지장 폐쇄는 장이 만들어지는 초기 과정에 생기는 이상으로 인해 생겨서 다운 증후군을 포함한 동반 기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외 공장 회장 등의 소장에서 생기는 경우는 장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후 출생 전 자궁 내에서 장혈관의 폐쇄에 의해 장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동반 기형 없는 경우가 많다.

태아가 출생후 24시간 이내에 태변을 배설하지 못하는 것과 부풀어 오른 복부, 초록색의 담즙성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 십이지장 폐쇄의 경우 산전 초음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출생 직후에는 복부 X선에서 특징적인 풍선 같은 두 개의 공기 음영이 관찰된다(그림2). 공장회장 폐쇄증은 위장관 폐쇄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발생 빈도는 2,000-3,000명당 1명 정도 생긴다. 진단은 복부 X선에서 공기로 차서 늘어나 있는 상부 소장을 확인하고 대장조영술로 대장이 가는 것을 확인한다(그림3).

수술 전 입위관을 통해 소장액을 흡입하여 배액하고 수술로 폐쇄된 양쪽 부분을 연결한다. 수술 후 장운동 저하로 1주일 이상 금식하기도 하지만 큰 문제 없이 잘 회복되고 큰 합병증 없이 잘 생존하는 경우가 많다. 종류에 따라 긴 부분의 장 절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다.

선천성 거대결장(히르슈스프룽병)

선천성 거대결장 혹은 히르슈스프룽 병은 선천적으로 장운동을 담당하는 세포가 장에 없어서 항문으로 음식물이 이동할 수 없는 병이다. 원인은 알 수 없으나 태아 때 장의 운동을 담당하는 세포인 장관신경절세포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관신경절세포는 장의 이완을 담당하는 세포이다. 장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음식물을 이동시키는데, 장관신경절세포가 없어 장의 이완이 안되면 계속 수축하게 되어서 음식물이 이동할 수 없게 된다. 발생률은 4,000~5,000명 출생당 1명 발생하며, 남녀 비율은 4:1(남)여)이다.

대부분 생후 24시간 내에 태변이 나오지 않거나, 배가 불러오는 증상이 나타나며, 변비, 담즙성 구토가 나타난다. 조영제를 항문을 통해 넣은 후 직장의 모양과 조영제의 이동을 보는 대장조영술을 시행한다. 선천성 거대결장은 장관신경절세포가 없는 부위는 장이 늘어나지 않아 좁아져 있고, 그보다 위의 장은 음식물이 이동하지 못해 늘어나 있다(그림4). 명칭은 거대결장이나 늘어난 결장은 정상 부분이고 늘어나지 못한 직장이 병변 부분이라 질병명이 잘못되어 히르슈스프룽병이라고 부른다. 직장 생검은 이 질환의 확진 검사로 흡입기를 통해 장 내의 세포를 떼어내어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이다. 조직 검사에서 장 내의 장관신경절세포가 없는 것을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선천성 거대결장은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장이 막히는 장폐색이 일어나고, 이후에 독성장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수술 이후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며, 초기에 치료한 경우 예후가 더 좋다.

치료는 수술이며, 수술 이외의 다른 치료 방법은 없다. 수술 방법은 듀하멜식, 소아베식, 스웬슨식 수술로 3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주로 복강경으로 시행하고 항문 쪽으로 신경절이 없는 장을 절제하는 방식을 많이 선호한다. 종류에 따라 전 대장에 신경절세포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인공항문을 만들었다가 2단계로 장 절제를 시행하기도 한다.

선천성거대결장은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장이 막히는 장폐색이 일어나고, 이후에 독성장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수술 이후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며, 초기에 치료한 경우 예후가 더 좋다. 소수의 아이에서 변비나, 변실금이 생길 수도 있다.

항문폐쇄

항문막힘증, 항문폐쇄증이라고도 하며 출생 시부터 항문의 일부분이나 전부가 불완전 또는 완전히 막혀있는 선천성 항문기형을 말하고 4,000명 중의 1명에서 5,000명 중 1명 꼴로 나타난다. 앞의 식도폐쇄와 마찬가지로 VACTERL association에 해당해서 동반 기형이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복부팽만과 구토가 있을 수 있지만, 폐쇄의 정도와 그 주위에 생긴 선천성 기형의 유무에 따라 증상이 다르다. 항문이 완전히 막히지 않고 작은 구멍이 뚫린 경우에는 출생 후기는 태변이 조금 나올 수 있고 완전히 막힌 경우에는 태변을 전혀 볼 수 없게



된다. 치골과 꼬리뼈를 연결하는 가상의 선을 중심으로 막힌 관의 끝이 상방에 있는 경우를 고위기형(그림5), 하방에 있는 경우를 저위기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그림6), 막힌 항문 부위의 바로 위에 있는 직장관이 방광이나 질, 요도와 연결되는 통로가 선천적으로 생길 수 있다. 진단은 기본적으로 출생 후에 항문 주위를 검진하는 것으로 가능하고, 항문 검진상 type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초음파나 MRI도 도움을 준다.

치료는 저위 기형의 경우 한 번에 항문 성형술을 실시하고 고위 기형이나 다른 장기와 누공이 있는 경우는 3단계 수술로 3번의 수술이 필요한데 우선 태어나서 24시간 이후에 대장루(인공항문)를 만들고 3~6개월 후 항문을 만드는 수술을 하고 그 몇 개월 후 대장루를 복원하여 항문으로 변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수술을 시행한다.

예후는 저위 기형의 경우 90~95%에서 정상 배변 능력을 획득하지만 고위 기형의 경우 50% 이하에서 배변 능력 불량이 발생하여 심한 변비나 변실금이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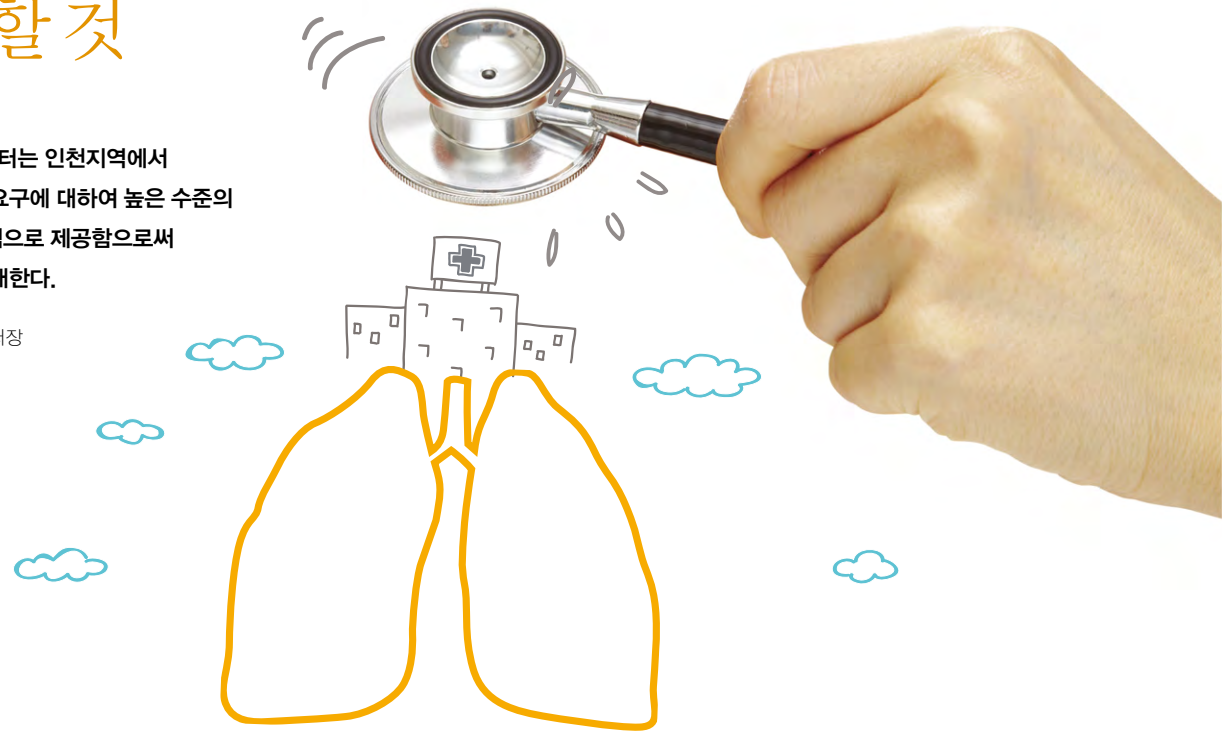
소화기관 선천성 기형은 예후가 많이 좋아져서 90% 이상의 환자가 생존할 수 있고 완치되는 경우도 많아서 수술받지 않은 아이들과 똑같이 잘 자라고 소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심장이나 다른 장기 동반 기형이 없다면 거의 큰 문제없이 잘 살아간다. 신생아는 어른 환자보다 회복도 빠르고 상처치유도 잘 되고 금세 건강한 아이를 따라잡아 잘 자라는 경향이 있다.

●문의: 소아외과 ☎032-890-2250

호흡기질환 고위험군 코호트 구축 폐암 검진사업 추진위해 지자체 설득할 것

인하대병원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인천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호흡기분야 의료요구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관련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글. 류정선 교수 /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장



센터 추진배경 및 의의

세계적으로 볼 때 향후 심혈관, 소화기질환 등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천식, 결핵 등과 같은 호흡기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호흡기계통 질환 중 대표적인 병인 폐렴의 경우 인천지역 진료 실인원을 보았을 때, 2013년 대비 2015년에 12.6% 증가하였다. 이렇듯 호흡기질환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인천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호흡기질환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분야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가 육성할 필요성이 큰 분야, 또는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가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전문진료 분야별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육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에 우리 병원은 호흡기전문진료 분야를 담당하는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선정되었다. 사실 그동안 몇몇 국립대학병원을 위주로 하여 권역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가 국가 지원으로 설립, 운영

되어오고 있었다. 이들 권역센터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인천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지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인천지역이 가지는 지역적 특성이 많이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행정구역상 8구 2군으로 총 10개 군·구로 구성되어 있는 인천권역은 서울에 근접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이 존재하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서해안의 백령도, 덕적도, 연평도 등을 포함하여 동서 간 약 192.2km, 남북간 117.6km에 달하는 상당히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구도심인 중·동·남구, 간척 매립으로 형성되어진 송도 신도시가 있는 연수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서구·계양구, 도서지역인 강화군·옹진군 등 인구의 구성 및 분포 측면에서 뚜렷한 지역 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서지역으로 농어촌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의 총인구는 87,443명인데 이중 의료취약인구가 35%(30,890명)이며 노인인구가 25%(22,121명)에 이르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들 지역은 중증질환의 치료 및 상급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강화군은

인하대병원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서울이라는 눈부신 등불 아래 숨어있어 눈에 띄이지 않았던 의료사각지대라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진다.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장
류정선 교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분만 의료취약지 및 응급의료준 취약지로 지정되어 있고, 옹진군은 민간의료시설 조차 없어 의료취약지역인 것이다. 인하대병원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서울이라는 눈부신 등불 아래 숨어있어 눈에 띄이지 않았던 의료사각지대라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진다. 환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벗어나 타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유출률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인천광역시는 22.4%로 불행히도 전국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유출률을 보인다.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의료비용을 줄이는데 환자 유출율을 낮추는 것은 중요한 요인이므로 인하대병원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의료 접근성 제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 및 국민의 의료인식 개선을 통하여 환자 유출율을 낮추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요즘 들어와 대기 및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우리 사회는 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사실 대기 환경오염은 어제오늘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요즘에 이슈화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전후가 어찌 되었던 호흡기질환의 직접적 위험요인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호흡기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입장에서는 다행으로 생각한다. 인천지역은 도심지내 인천항(선박), 산업단지(유해물질), 신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대형화물차 이동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배기가스 노출에 따른 위험이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인천지역은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농도는 전국에서 2위, 이산화질소 농도는 3위로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 높은 도시인 것이다. 인하대병원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는 호흡기질환 예방 및 대안 제시를 통하여 지역의료의 공공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향후 계획

우선 인천지역 의료 접근성, 의료 이용 및 제공실태 분석을 시행하

여 지역 내 호흡기질환 실태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만성 폐쇄성폐질환, 폐암 등과 같은 공공전문진료센터가 향후 중점을 두고 관리해야 할 대상질환을 선정할 것이다. 아울러 의료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의료 접근성 개선방안, 핵심 대상 질환의 관리방안을 고민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공공전문진료센터 내 진료의 질적 수준, 환자 교육시스템, 환자 편리성/ 접근성 등의 개선 및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진료시스템 개발에 노력할 것이다.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 핵심관리 질환 CP 구축, 다학제 진료를 통한 통합진료 방안 마련, 외래/입원/원외 환자 관리시스템, 관리대상 DB 구축 및 추적관찰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병원 내 협조는 물론 지자체, 보건소, 지역 병의원을 비롯한 대학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한다. 인천 지역금연센터, 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인천광역시, 지역병원, 보건소 등과 협력/지원 시스템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통하여 백령병원 등 도서 지역 보건소/병의원에 호흡기질환 진료지원, 만성폐쇄성 폐질환 관리개발(보건소 방문간호사제도), 흡연남성 대상으로 한 폐질환 검사 및 상담(인천지역금연센터) 및 섬 프로젝트(공공의료사업단)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와 관련해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역 내 호흡기질환 고위험군 코호트 구축을 통한 폐암 검진사업 등 다각도 접근,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를 설득할 것이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비롯한 호흡기질환 발생 요인 파악/저감대책 수립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인하대병원 산업의학과/인하대학교 공과대학과 협력하여 추진할 것이다. 그 외에도 호흡기질환 고위험군 파악, 감소/관리방안 수립을 위하여 다각도로 고민할 것이다. 교육/홍보와 관련해서 지역 내 의료인 및 호흡기질환 환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고, 일반인 대상으로 호흡기질환 홍보, 예방교육에 힘쓸 것이다.

희망의 두레박질은 계속된다

그곳은 게토(Ghetto)다. 유대인을 강제 격리하기 위해 설정했던 게토처럼 그곳은 도시의 유민들을 가둬놓고 있다. 인근의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낱뽕을 파는 도시 빈민들이 모여들면서 산동네 달동네가 되었다. 그들은 한시도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저버린 적은 없다. 오늘도 열우물에 모여 희망의 두레박질을 계속한다. 십정동에는 한때 한센병자들이 돼지를 기르고 닭을 치며 고단한 삶을 영위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계단이 이어지고, 얼굴을 맞댄 집들이 웅기종기 모인 곳
이 동네는 은밀하지 않다. 계다가 위대하지도 않다. 그러나 총관객수 625만 명을 기록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킨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많은 부분을 이 동네에서 촬영했다. 제작팀이 4개월 동안 전국 60여 곳에 달하는 후보지를 헤매다 이곳에 와서 외친 한마디. “바로 여기다.”
“공화국에서는 혁명전사, 이곳에서는 간첩. 난 최정에 스파이인데 내 남편과 임무는 달동네 바보 백수 역할.”
십정동은 혈령한 추리닝을 입은 더벅머리 바보 백수 동구(김수현 분)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살수 있는 곳으로 딱이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계단이 이어지고, 얼굴을 맞댄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다. 금

세라도 동구가 쌀부대를 들고 뛰쳐나올 것만 같다. 눈길 닿는 대로 발길을 좇으면 영화 속 풍경을 자연스레 만난다. 마치 달동네 동구가 된 듯하다. 영화에서 십정동은 단순한 배경 그 이상이며 밑바탕을 이루는 정서다. 돌아갈 곳을 잃은 간첩 셋이 정 붙이고 살아갈 만한 동네다. 영화의 중심 무대였던 석이슈퍼는 사라지고 없다. 세트로 지은 건물은 촬영이 끝난 후에 허물었다. 그 자리에는 작은 텃밭이 들어섰다. 영화의 흔적은 열우물로 102번길 언덕배기에 그대로 남았다. 더벅머리에 초록색 추리닝과 남색 슬리퍼의 벽화 그림. 낮익은 뒷모습, 누가 봐도 동구다. 누군가 동네 담벼락에 동구의 모습을 그렸다. 이곳에는 유난히 계단이 많다. 마치 빗길을 한 것처럼 모두 아래를 향해 있다. 시간이 가면서 시멘트 계단은 쪼개지고 부수어지며 울퉁불퉁한 흉물이 되었다. 몇 년 전부터 이 동네에 젊은이들이 ‘은밀

하게 나타났다. ‘열우물길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붓을 들고 계단과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인천 벽화운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붓만 든 것이 아니다. 2002년도에 시작된 이 일에는 교육과 문화도 뒤따랐다. 그들은 맛벌이나 결혼 가정으로 자칫 방치되기 쉬운 아이들의 형과 누나가 되어 주고 산 동네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다시금 ‘위대하게’ 되살렸다. 언뜻 보아도 한때 이 동네의 중심 역할을 했을 것 같은 장소에 걸음을 멈추었다. 이 길은 산동네에서 아랫동네로 통하는 길이다. 길 양쪽으로 허름한 2층 상가가 뻗어있다. 대부분 문이 닫혀있지만 비디오 가게, 양장점 등이 여전히 빛바랜 간판을 달고 있다. 고추를 빵기 위해 할머니 두 분이 방앗간 앞 평상에 앉아 있다. “할머니, 여기가 예전에 시장이었나 봐요. 시장 이름이 뭐예요.” “여기가 구(舊)시장이며. 옛날엔 저녁때만 되면 사람들로 시끌벅적

했던 곳이야. 약국도 있었고 정육점, 술집도 있었지”
인근 수출 5,6공단 덕분에 동네 경기가 좋았던 시절 상권이 형성되었던 곳이다. 이제는 조금 떨어진 신시장에 상권을 빼앗기고 퇴락하였다. 요즘 보기 드문 장의사집 간판이 보였다. 동네마다 장의사집이 있던 시절이 있었다. 이젠 태어나고 죽는 곳이 집이 아니라 병원이다. 어렸을 적엔 장의사집 앞을 제대로 지나가질 못했다. 무서웠다. 그 집안에서 주검을 모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장의사 집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초상집 때문에 내거는 등불과 병풍, 천막 등 장례식에 필요한 비품들이 보였다. “늙어 죽을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죽어서 이제 이 동네는 초상도 나지 않아. 그나마 요즘은 죽으면 병원 영안실로 다 가잖아. 여긴 그냥 간판만 걸어둔 거요.”



十井洞

이 장의사집의 실제 주인은 현재 시내 모 병원의 영안실을 운영하고 있다. 옆집에 사는 김금옥(85) 할머니가 대신 집을 지키고 있다. 할머니는 이 장의사집에서 차례로 남편과 아이들의 초상을 치렀다.

인천에서 부평에 이르는 첫 마을 '열우물'

요즘은 십정동보다 '열우물'이란 이름이 더 가깝게 다가온다. 동네 이름 풀이는 여러가지다. 흔히 10개의 우물이 있어 십정동(十井洞)이란 이름을 얻었다는 설과 추운 겨울에도 따뜻해서 얼지 않는 '열(熱)이 나는 우물'이 있어서 '열우물'이란 설 그리고 산줄기가 십자형으로 교차한 형국(十丁)인데 이게 '十井'으로 변형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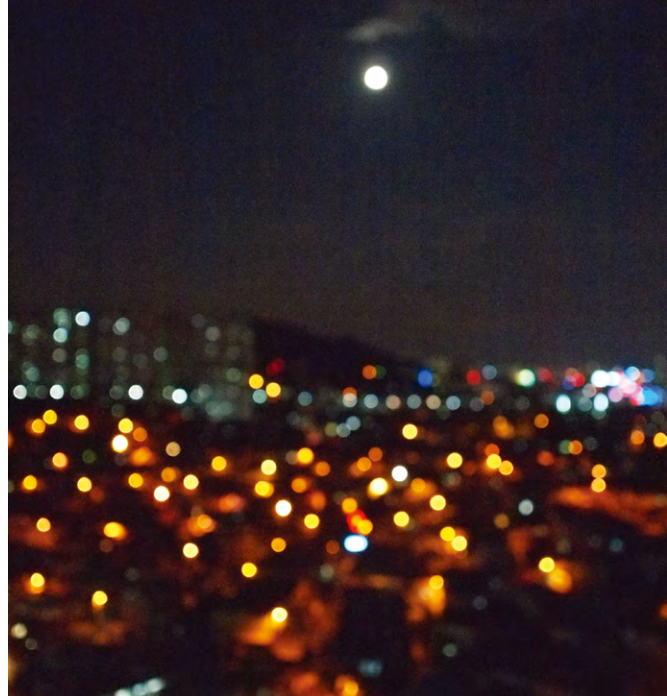
아무튼 열우물은 인천에서 부평에 이르는 첫 마을이었다. 예전 인천 시내에서 부평을 거쳐 김포나 강화 길로 접어들려면 이곳을 거쳐야 했다. 배밭과 염전이 있던 한적한 이 마을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다. 동구 만석동과 주안 지역 그리고 멀리 서울에서 철거민들이 떼밀려 들어왔다.

아랫동네부터 무허가 집짓기가 시작되었다. 앞집의 어깨를 짚고 다른 집이 올라섰다. 집들을 나누는 담장은 없다. 담을 칠 공간조차 없었다. 집의 벽이 곧 담장이 되었다. 산 모양을 따라 낮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었다. 오를 수 있는 곳까지 집들이 들어섰다. 그렇게 산동

네가 되었다. 동네를 벗어나는 길도 따로 없었다. 다니다 보니 그게 골목이 되고 길이 되었다. 갯골이 가깝게 있던 아랫동네는 비만 오면 바다가 되었다.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이 살 수 없는' 동네가 되었다. 집값이 싸다 보니 인근의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낱품을 파는 도시 빈민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달동네가 되었다. 몇 년 전 십정동은 수많은 집들을 긁어내고 한쪽에 거대한 아파트를 세웠다. 그 아파트들은 마치 겁먹고 움츠린 꼬마를 무릎 꿇게 하고 으박지르는 '어깨'의 모습이다. 본격적인 재개발 바람으로 이 동네는 곧 덩치 큰 어깨들만 꼭 차게 들어설 것이다.

열우물에는 또 다른 눈물이 배어있다. 천형(天刑)이라 불리는 한센병을 앓던 사람들이 십정동 한편에서 세상의 천대 속에 모진 삶을 이어갔다. 동암역과 백운역 사이 경인철도 변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부지는 당시 나환자들이 개간해서 일군 십정농장터였다. 1998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농장은 해체되었지만 아직도 철도 건너편에는 영세 공장지로 변한 그 잔재가 남아있다.

부평 지역에 한센병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초 '성계원'이란 집단 나환자촌이 형성되면서부터다. 성계원은 지금의 인천가족공원(부평공동묘지) 위쪽 산속에 자리 잡은 일종의 국립요양원이었다. 이곳에는 원래 1947년에 '동인요양소'라는 작은 단체



한하운 시집 '보리피리'와 옛 십정농장 전경(원내는 한하운).

가 있었다. 서울, 수원, 강원도 등에서 한센병자들이 집단 이주하면서 그 규모가 커졌다.

1961년에 성계원은 양성과 음성을 구분해 양성환지는 그곳에 그대로 남게 하고 음성(치유)환지는 자립을 위해 십정동과 청천동 등지로 이주시킨다. 천주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십정농장으로, 개신교 신자는 청천농장으로 분리되었다. 그들은 사회에 반대 속에서도 부지런히 양돈과 양계 사업에 종사하며 사회에 완전히 정착했다. 한때 인천 대부분의 달걀은 그들 손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문둥병 시인 한하운(韓何雲)과 거대한 소금밭

그들 속에 한하운(韓何雲)이 있었다. '문둥병 시인'으로 알려진 그의 시 '파랑새', '보리피리'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다. 한하운은 나병의 한(恨)을 시로 승화시키면서 사회와 소통하려 했던 예술가이자 사회사업가였다. 그는 한센병자의 자식들을 위해 1952년 농장 인근에 신명보육원을 창설했다. 당시 보사부는 성계원에 거주하는 나환자들이 아이를 갖는 것을 금지했고 아이가 있으면 부모와 서로 만날 수 없도록 격리해 수용했다. 성계원과 신명보육원 사이에는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었다. 아이가 보고 싶은 부모와 부모가 그리운 아이들이, 해가 지면 산을 돌아 넘어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몰래 만났다고 한다.

인근에 한 초등학교가 개교한 1965년대 무렵, 이 학교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근처 십정농장 아이들이 입학하는 것을 꺼려 농장 근처에 그들만의 분교를 따로 두자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그 뜻을 관철시키진 못했다. 한센병자의 자식들은 어렵사리 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교사와 같은 반 아이들의 멸시와 천대 속에서 지내야만 했다.

최근 인천시에서 발행한 '인물로 보는 인천사'에 한하운이 포함되었다. 그 책에 의하면 그는 1949년 12월 30일 밤, 70여 명의 환자를 이끌고 부평공동묘지 골짜기로 들어왔다. 그들과 닭똥을 치며 동고동락하다가 1975년 2월 28일 십정동 산 39번지 자택에서 간헐화로 사망하였다. 그는 죽어서 푸른 하늘 푸른 을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푸른 울음을 우는 파랑새가 되었으리라.

십정동은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거대한 소금밭을 품고 있었다. 바닷물이 동네 어귀까지 드나들었다. 구한말 융희 원년(1907년)에 소금을 공급하기 위해 조정에서 1정보(약 3천평) 규모로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염전 시험지를 조성했다. 현재의 홈플러스 간석점 부근인 십정1동 558-7 일원이다. 시험을 마친 이후 약 99만 1,735㎡(30여 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염전이 본격적으로 조성되었고 주변에 천일염을 정제하는 소금공장들도 함께 들어섰다. 인천은 한때 전국 소금 소비량의 절반을 충당할 정도로 풍부한 생산량을 자랑하기도 했다. 산업화의 물결이 밀어닥치면서 염전 일대는 1969년 수출 5·6공단과 인천기계공단으로 지정되었고, 결국 그 자리를 불도저로 밀어 소금끼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염전벽해(鹽田碧海)의 흔적은 표지석 하나로 달랑 남아있다. 지번 하나 갖고 천일염전 최초 시험지 표지석을 찾기 위해 주변을 서너 번 돌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공장 관리인의 안내를 받고서야 겨우 '발견'할 수 있었다. 그 표지석은 옛 서울제강 단지 내에 있는 고물 집하장 정문 옆에 먼지를 뒤집어쓴 채 웅색하게 있었다.

그때, 이곳 십정동

인천해광학교 인천해광학교는 1966년 12월 임경삼 목사가 실명 어린이 6명을 양육하면서 세운 시각장애인학교다. 1968년 기독교어린이원을 설립했고 1961년 경기맹학교를 개교했다. 1982년 지금의 학교명으로 변경했고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등부 및 전공부를 갖춘 시각장애인들의 요람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 씨도 이곳 출신이다.

부평전투 승전기념비 부평아트센터 옆 백운근린공원에 있는 현충 시설로 2008년 6월 13일에 건립했다.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후 경인국도를 따라 서울로 진격하던 국군 해병 제3대대와 연합군은 원통이 고개 등 부평 지역에 진을 치고 있던 적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군의 피해도 있었지만 이 지역에서 많은 적을 섬멸했다. 이 전투로 서울 수복이 시작된 것이다.

먼저 아프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저하는 시인은 겁쟁이

“들꽃을 좋아하기보다 그 상징을 좋아합니다.
위대한 사람들보다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인류를 움직여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삶, 역사는 이런 ‘들꽃’ 같은 사람이 모여서 이끈다고 믿어요.”

에디터_ 이정희 사진_송인혁 실장 / 다부스튜디오



곽효환 시인의 데뷔는 동년배에 비해 늦은 2006년의 일이다. 시력이 너무 나빠 군 면제를 받은 그는 졸업과 함께 연합뉴스 기자 생활을 먼저 했다. 신문기자가 되고 싶은 길과 창작을 하고 싶은 두 개의 길을 고민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문학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지금의 직장(대산문화재단)으로 오면서다.

변두리 삶을 살았다는 그가 만난 모든 것이 들꽃이고 들풀

전주가 고향인 그는 스스로 변두리 삶을 살면서 만난 모든 것이 들꽃이고 들풀이었다. 곽효환 시인은 고1 때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다. 당시 여수 아파트 건설현장에 뛰어든 정도로 치열하고 거칠게 사셨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린다.

그의 작품 곳곳에는 어머니에 관한 시가 등장한다. ‘지도에 없는 집’에 실린 ‘외출’이라는 시가 그것인데 아들의 손을 잡고 병원 다녀온 것이 어머니에겐 ‘외출’이어서 쓴 작품이라 한다. 지금 예술가로 있는 이유도 역시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주위분의 추천으로 ‘장한어머니상’을 수상한 것 같다고 전한다.

광화문 거리를 깊은 울림으로 채운 ‘얼음새꽃’

“생명의 강인함, 보잘것없고 가장 힘이 없는 게 들꽃이죠. 그렇지만 가장 먼저 올라와서 생명을 보여주고 꽃을 보여주는 강인한 의지는 들풀만이 갖고 있는 두 얼굴입니다. 시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공을 들이는 시가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얼음새꽃’은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자연스러움이 독자에게 편안함을 느껴지게 하고 공감을 주는구나 생각했죠. 이번 ‘슬픔의 뼈대’에 실린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대 격동의 시기에 그는 대학신문사 기자로 활동했다. 당시를 회상하면 이데올로기가 치열하게 부딪혔던 시기여서 대학신문을 만들기보다 민주주의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신문은 안 만들 것이라고 말하는 그다.

“연애를 열심히 할 거 같아요. 그나이에 할 일을 하는 것, 꼭 필요

1 곽효환 시인은 직접 작품해설을 수록한 청록집 발간 70주년 기념 시그림집 '청록집' 작업을 최근 끝냈다.

2 '얼음새꽃'이 걸렸던 광화문 글판, 거리를 오가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희망으로 가슴을 뛰게 한다.



그날

그날, 텔레비전앞에서 늦은 저녁을 먹다가
울컥 울음이 터졌다
멈출 수 없어 그냥 두었다
오랫동안 오늘 이전과 이후만 있을 것 같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밤, 다시 건다는 힘을 배우기로 했다

- 슬픔의 뼈대 중에서 -

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핍을 안고 살게 되죠. 제 시 중 ‘수락산’은 ‘나는 아직 누군가를 사랑해본 기억이 없다’로 첫 구절을 시작해요.”

그가 20대에 가져보지 못한 열렬함의 결핍은 세 번째 시집 ‘북방의 시’를 써내려간 ‘슬픔의 뼈대’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북방’은 그가 좋아하는 시원이다. 그에게 북방은 고달프지만 벽참, 아쉬운 역사의 현장 그리고 따스한 인간미가 살아 있는 땅이고 사랑의 궁극이 있는 곳이다.

마지막까지 치열하기보다 물러서 주는 것이 ‘웰빙’

담배는 안하고 술은 즐기지만 과음하지 않고 주 2회 땀을 흠뻑 흘릴 정도로 운동한다. 주말에는 1시간 이상 좋아하는 ‘걷기’를 꼭 하려고 한다. 그에게 걷기는 생각을 정리하고 좋은 잡념을 하는 힐링 시간이 된다.

두 번째 시집에 수록된 ‘삶 이후의 삶’은 그가 노령화된 현대사회의 삶을 생각해보고 쓴 작품이다.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연장시키는 지구의 유일한 동물이 인간인데 늘어난 수명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 중요한 그것이 빠져 아쉬운 마음을 담은 것이다. 마지막까지 치열하기보다 멀찌감치 물러서 주는 페루 원주민의 삶에서 느껴지는 지혜,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웰빙이다.

글 쓰는 사람은 빨리 반응하고 먼저 아프다.

그리고 나중까지 왜 아파하냐고 묻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저하는 소심한 겁쟁이라고 그는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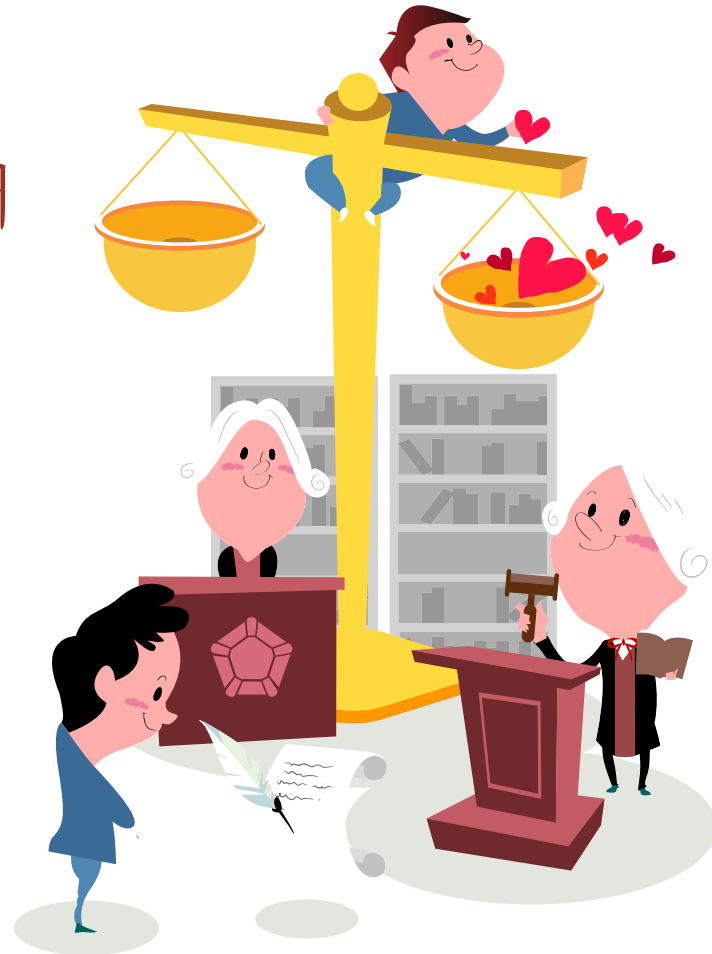
‘시’는 어떤 삶이나 현상을 통찰하는 힘이 있고 그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내는 게 ‘시인’이라는 말도 덧붙인다.

곽효환 시인은 두루 생각하는 사유(思惟)의 부족과 시를 많이 읽지 않는 요즘이 참 안타깝다.

대학병원 수술·입원 청탁 NO! 환자나 환자가족으로부터 감사의 선물도 받을 수 없습니다!

환자와 의료진도 최근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피해갈 수 없다. 병원 내에서도 “성원과 격려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자칫 순수한 감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놓칠 수 있는, 병원 전 직원과 환자, 보호자 등 함께 알고 지켜야 할 병원 관련 김영란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글_ 편집부 자료·출처_ 국민권익위원회



환자 청탁은 병원 직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환자 예약 순서를 바꿔달라는 것 자체가 부정청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환자를 직접 봐야 하는 의사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의료진에게 진료,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감사 인사 표시로 건네는 선물들이 이제는 미담이 아닌 ‘부정 청탁’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물론 국공립과 공공병원, 사립대병원,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이 모두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다.

환자 예약순서 바꿔달라는 것 부정청탁

병원에서 환자의 외래진료, 수술, 검사 등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입원 병상을 마련해달라는 청탁,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진료,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감사 인사로 선물을 건네는 행위 등은 이 제 안 된다. 사례를 들어 알아보자.

A는 OO국립대학교병원에서 입원을 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의 친구 B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원무과장 C는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대기자 A가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대기 환자가 있는데 진료, 수술 순서를 변경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어 부정청탁이 된다.



- 국립대학교병원의 입원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국립대학교병원은 공직 유관단체, 학교법인(학교) 소속기관으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음
 -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매각·사용·수익 등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9호)
 -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
 - 입원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임
 - 대기자 A는 제3자인 친구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친구 B는 제3자인 대기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원무과장 C는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해당 병원에 대기자 A가 우선하여 입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형사 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협력병원 원장이 의뢰한 환자에 대한 부탁, 부정청탁?

협력병원 원장이 외래 및 응급실로 환자 진료의뢰 시 환자의 상태가 기다리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대외협력팀 직원에게 진료순번을 당겨달라고 얘기해서 진료과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순번 조정을 부탁하는 것은 가능할까? 또 대학병원 교수에게 보낸 환자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 할까? 병원과 협약된 MOU기관 협약 관련, 외국인 진료 등에 관한 문의 등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질문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

김영란법 Q&A 자료는 아직 정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유형, 청탁금지법의 취지,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환자 의뢰 시 정당한 업무행위, 단순한 선처 편의의 부탁, 자신의 권리확보를 위한 부탁 등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지만 대기 환자가 있는데 진료, 수술 순서를 변경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어 부정청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대’를 맞아 직무 관련성 여부가 헛갈리면 ‘더치페이’를 하고, 부정청탁을 받으면 처음에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고 또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시행 초기이다 보니 어떤 행위가 법에 저촉되고, 허용되는지 명확하기 구분하기 힘든 탓에 적용 대상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뿐이다.

김영란법 10계명

- | | |
|--|---|
| <p>3·5·10</p> <p>1. 기본 중 기본은 ‘3·5·10만원’ 법칙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에게 식사·선물·경조사비 제공 땀 각각 3·5·10만원 이하로 • 위반 땀 과태료 부과, 공직자는 소속 기관까지 처벌 ‘양벌규정’ | <p>4. 결혼·장례 이외엔 경조사비 안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돌잔치·생일 등 여타 경조사 때에는 경조사비 수수 불허 • 결혼·장례때 10만원 넘는 경조사비 받으면 초과분 돌려줘야 |
| <p>2. 죽마고우라도 ‘직무관련성’ 있으면 3만원 이내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란법에서는 ‘직무관련성’ 관련해 친분관계 고려 안해줘 • 고교동창 사무관·기자·교사 만나도 한 명이 3만원 넘겨 대접 안돼 | <p>5. 결혼식때 식사대접 3만원 넘어도 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식·장례때는 일몰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초과 식사는 허용 |
| <p>3. 애매할땐 무조건 ‘더치페이’ 하고 영수증 챙겨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를 만나든 자기 밥값 자기가 내면 문제 안돼 • 이해관계(인허가 등) 있는 공직자 만날때는 3만원 식사도 불허 | <p>6. 식사, 선물 같이 대접할땐 합쳐서 5만원 이하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비용은 3만원 이내로, 선물비용은 ‘5만원-식사비용’으로 제한 |

신장이식의 경우 장기이식센터 개소 이후 가장 두드러진 발전을 보입니다. 신장 이식팀은 이식 외과 의사뿐만 아니라 신장내과 의사 및 전문 코디네이터와의 협력으로 생체 신장이식 및 뇌사자 신장이식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_ 신장이식팀



장기기증자 발생 시 신장이식 우선권 ‘뇌사 판정 대상자 관리병원’ 완벽한 프로그램, 불필요한 검사는 NO!

장기이식은 새로운 생명의 불꽃을 되살리는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치료이기도 합니다.

인하대병원은 인천을 대표하는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2015년 11월 통합 장기이식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통합장기이식센터를 개소하면서 기존의 각 파트별 장기이식 시스템에 다학제 진료를 추가로 구축했다. 이는 더욱 성공적이고 안전한 장기이식이 시행되어 불꽃을 되살리는 우리 병원의 적극적인 마음으로 지지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개소 후 간, 신장, 각막,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각각 간이식팀, 신장이식팀, 각막이식팀, 조혈모세포 이식팀을 결성하여 장기이식 프로그램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하대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올해 7월,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3차 인증을 통해 “장기이식 프로그램이 완벽하다(Perfect)”는 평가를 받아 국제 기준에서도 인정된 안전한 장기이식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는 등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는 우리 병원 ‘신장이식팀’의 진료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과 이식 의사에게 부과되는 특진비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술 관련 특진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타 병원 신장이식 비용보다 부담이 적은 비용으로 안전한 이식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뇌사자 신장이식 대기자의 신장이식 대기기간 단축을 실현 중입니다.

인하대병원은 정부산하 국립장기이식센터가 지정한 ‘뇌사 판정 대상자 관리병원’으로서 뇌사자 장기기증이 진행되면 뇌사자의 신장 2개 중 1개는 뇌사 장기기증자의 발생병원에 신장이식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인하대병원 장기이식센터 개소 이후 인하대병원의 뇌사 장기기증자가 증가함에 따라 신장이식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하대병원에서는 신장이식을 위한 뇌사자 대기자 등록 환자가 타 병원에 비해 현저히 적은 상태입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신장이식센터 의료진 황선덕 교수와 박근명 교수(우측)

9월 22일 동아일보에 기사화된 12년간 투석을 받고 신장이식을 받은 임OO 씨의 경우 뇌사자 신장이식 대기자 신청기간이 1년 4개월이며, 심지어 지난 7월 및 9월에 뇌사자로부터 신장이식을 받은 김OO 씨와 이OO 씨의 경우도 뇌사자 신장이식 대기자 신청 기간이 불과 2개월 정도입니다.

이는 다른 대형병원 및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흔하지 않은 경우이며, 타 병원의 경우 대기 기간이 약 5년~7년이라는 점에 비해 인하대병원은 신장이식 대기기간이 짧으므로 더욱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따라서 신장이식 대기기간이 짧은 인하대병원에 신장이식 대기자 등록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AB 혈액형의 경우, 등록 대기자가 적은 데다가 장기이식센터 개소 이후 이식을 받은 분들이 많아 대기자 등록을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환자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신장 이식팀의 팀워크입니다.

신장이식의 특성상 환자가 이식 전·후 의료진에게 문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궁금증에서 시작하는 질문부터 환자의 중요한 상태변화까지 환자와 같이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해 가장 가까이에서 전문 코디네이터가 항상 함께합니다.

코디네이터는 신장이식을 위한 첫 상담부터 이식 수술과 퇴원 후 외래 방문 중에도 이식받은 신장이 안전하게 적응할 때까지 필요한 전반적인 일을 조율합니다. 한밤중에 급하게 상담해야 할 상태 변화는 물론, 작은 궁금증까지도 코디네이터를 통해 신장 이식팀 의사와 공유하여 적시에 적절한 대처를 함으로써 성공적인 신장이식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과 이식 의사 및 신장내과 진료 의사도 신장이식 환자의 상태변

화와 정서적 지지를 위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코디네이터와 24시간 연락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외래진료 이외의 스케줄에도 신장이식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인 JCI에서도 인정한 ‘완벽한 장기이식 프로그램’입니다.

인하대병원은 외과, 신장내과, 비뇨기과, 영양팀, 약제팀, 면역검 사실, 공공의료 사업지원단과 장기이식 코디네이터가 긴밀하게 다학제적 장기이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한 신장이식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생체 이식의 경우 기증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여 기증자의 소중한 결정을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생체 신장이식을 고민하는 가족에게는 이러한 시스템이 가족 간 화합과 기증자와 수혜자의 정서적 안정으로 성공적인 신장이식 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생체 및 뇌사자 신장이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장이식을 담당하는 외과 이식 의사에 따르면 신장은 손상되더라도 뚜렷한 초기 증상이 없는 ‘침묵의 장기’ 이어서 신장기능의 90% 가까이 손상되는 만성 신부전에 이르러서야 두통, 구토,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투석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커지므로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 신장이식을 받으려는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식 의술의 발달로 이식 후 1년 이내 이식 신장이 생존할 확률은 뇌사자 이식의 경우 1975년도에는 50% 정도였으나, 2000년도에는 90%로 증가하였습니다. 생체이식의 경우도 88% (1975년)에서 93% (2000년)로 현저히 좋아졌습니다.

과거보다 발전된 현재의 이식 의학에 힘입어 인하대병원의 장기이식센터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인하대병원 장기이식센터만의 노하우를 통해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고 투석을 하고 있거나, 투석을 예정하고 있는 분 누구에게나 신장이식의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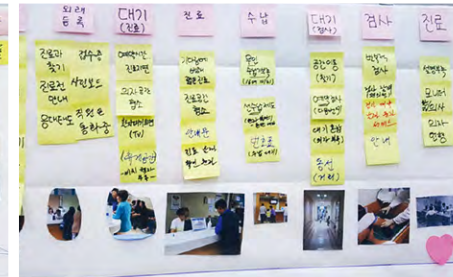
인하대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신관 3층에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연락처는 (032)890-2900입니다. 신장이식에 대한 상담 및 대기자 등록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코디네이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고객(환자)의 생각을 알까?”

임원진과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 새롭게 출발하는 28명의 '의료서비스디자인팀'은 모두가 함께 이루어나가는 병원변혁의 주역이 될 것을 선서하고 혁신적 전환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_유미애 파트장 / 서비스혁신팀 사진_김미란 과장 / 서비스혁신팀



“우리가 정말 고객(환자)의 생각(경험)을 알까?”

인하대병원은 의료서비스디자인 도입 선포식 및 팀 발대식을 통해 환자 중심병원으로 거듭나는 혁신적 전환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료서비스디자인팀 팀장은 김우철(의료혁신 실장) 교수가 맡았다.

현재 의료산업은 성장이 둔화하고 경쟁이 심화하면서 높아진 고객의 기대수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병원이 안고 있는 과제이다.

병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여 고객의 경험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책으로 최근 '서비스디자인'이라는 방법을 도입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며 인하대병원의 '의료서비스디자인' 도입 배경을 밝혔다.

“디자인적 사고가 병원을 바꾼다”

새롭게 출발하는 28명의 '의료서비스디자인팀'은 전문의 5명 포함 다양한 직종과 부서에서 역량이 뛰어난 직원으로 팀을 이룬다. 안승익 진료부원장과 전상기 행정부원장의 활동 참여와 지원을 받으며 임원진과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 모두가 함께 이루어나가는 병원변혁의 주역이 될 것을 선서했다.

“환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

1주일 동안 팀을 나누어 환자를 관찰, 인터뷰하고, 병원내 직원도 인터뷰한다. 문제가 있는 곳을 촬영하여 리서치 리포트를 작성하는 등 새로운 방법으로 현재 문제점을 도출해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팀원들은 직원이 생각했던 불편한 점과 환자가 느끼는 불편의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확한 현상을 모르고 개선을 시도하는 경우 대부분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환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문제점이며 그를 통해 개선해야만 진정한 개선임을 알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팀원 모두가 가장 큰 것을 얻게 되었다.

“환자가 되어 병원을 체험하고 환자분들과 심층적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속마음까지 알아내고 보니 막연하게 이런 부분에서는 불편하겠다 싶었던 것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불편한 점은 따로 있었다” 고 깊은 반성과 적지 않은 충격을 말하는 참여직원도 있었다.

활동주제는 팀원 스스로 결정하여 1. 유방갑상선외과센터 서비스 개선 2. 외래진료 서비스 디자인 3. 퇴원절차 프로세스 개선이며 각 주제에 따른 문제점 알아보기, 5 why 원인찾기, 피소나, 고객여정지도, 서비스 컨셉 도출 등 다양한 방법적 도구를 이용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갔다.

도출된 아이디어를 발표한 3개조의 개선안에 팀원 스스로 투표를 통해 으뜸상, 혁신상, 최고상을 수여했으며 이 개선안을 실천하여 환자중심 서비스혁신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다짐을 했으며 인천광역시에서 최고가는 대학병원으로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품격까지 높이고자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아가야, 미안! 가장 공포스러운 처치 '주사'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의 경우 통증에 대한 언어적 표현을 할 수 없어 정맥주사와 관련된 합병증이 시작되는 것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수시로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

글·사진 서8병동



정맥주사팀

소아 환아에게 정맥주사요법은 입원 기간 빈번하고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시술이다. 소아는 성인에 비해 피하층이 두껍고 혈관이 약하여 정맥주사 삽입과 유지가 훨씬 어렵고 이와 관련된 합병증도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소아정맥요법은 소아 특성상 혈관이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아 시술이 매우 어렵고 환아 및 보호자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시술이다. 세심하고 정교한 술기가 요구되고, 이와 관련하여 환아 및 보호자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또한 소아정맥 시술 후 유지를 위한 세심한 주의와 간호가 중요하며, 간호사 측면에서도 스트레스가 높은 간호 활동으로 본원 소아병동에서는 소아 정맥주사요법에 대한 개선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전공의, 소아병동 간호사로 QI 활동 팀을 구성하여 환아 및 보호자와 간호사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정맥주사요법 시행관련 술기 능력 향상과 정맥주사 유지 기간 연장을 위한 개선활동을 시행하였다.

간호사 90%가 불만 민원 경험할 정도로 예민한 시술

소아병동 근무 간호사 면담결과 전체 간호사의 90%에서 소아정맥 시술과 관련되어 불만 민원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현재 소아정맥요법 전담간호사 1명이 배치되어 전담간호사 근무가 없는 시간인 야간과 휴일에는 정맥주사 지연, 간호사의 스트레스 증가, 환아 및 보호자의 불안 증가 등으로 간호사와 환아 및 보호자 만족도 저하의 요인이 되었다. 또한 소아정맥요법 시행 후 소아 특성상의

사표현이 어려워 정맥주사 부위의 주기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다. 현재 병동에서 주사부위를 안전하게 고정하기 위해 반창고 등으로 단단히 감싸는 폐쇄형 정맥주사 고정법을 적용하고 있어 주사 부위 침윤이나 발적 등의 관찰이 어려워 합병증 발생에 대한 문제 발견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선활동 전 QI활동팀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소아정맥요법의 비효율적 관리에 대한 요인을 도출하였으며(표 1), 개선 활동 전후 비교를 위해 환아 및 보호자 만족도와 간호사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분석하였다.

표 1. 소아정맥요법의 비효율적 관리에 대한 요인

요인	내용
환자 및 보호자 요인	1. 과도한 움직임으로 IV 유지 어려움 2. 피부 예민(가려움증, 정맥염) 3. 정맥주사 거부
의료진 요인	1. 정맥주사 관리 미흡에 따른 잦은 민원 2. 정맥 관리 지식 및 술기 역량 부족 3. 잦은 정맥주사 시도로 진료재료 소모량 증가 4. 정맥주사에 대한 불안 스트레스
시스템 요인	1. 주사부위 폐쇄적 고정으로 관찰 어려움 2. 간호사에 따라 고정방법이 다름



개선을 위한 활동 전략

정맥주사 부위 개방형 고정방법 개발



개방형 정맥주사 고정법

1개월간 본 QI활동 팀에서 다양한 고정방법을 시도하여 픽싱롤과 테가덤(투명비닐)을 활용하여 픽싱롤 사각으로 자른 뒤 가운데 부분에 창을 내어 주사부위에 고정되었다. 그 위에 테가덤으로 이중부착을 하여 정맥주사 부위가 가장 잘 관찰되며 고정상태가 단단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주사부위 합병증 발생 여부 관찰이 용이하도록 최적의 고정법을 개발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정맥주사 전담팀 운영(One Shot Clean Up)

부서 자체적으로 정맥주사 요법 수행 우수 간호사 5명을 선정하여 한 개의 팀(B팀)에 배치하고 정맥주사 전담으로 구성하여 집중적인 교육과 술기 훈련 후 근무조별 1명씩 정맥주사 우수 간호사를 배치하여 정맥주사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간호사 교육과 홍보

부서 내 모든 간호사를 대상으로 소아 정맥주사에 대한 이론과 술기, 고정방법에 대해 소아정맥주사 전담간호사가 집체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간호사 개인별 정맥주사 술기에 대한 실습교육을 시행하였다. 정맥주사 전담 팀원은 집중적인 실습교육을 추가로 시행하여 정맥주사 술기 능력 향상 및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고, 추가로 동영상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개인별로 복습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정맥주사 고정방법과 소아정맥주사방법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간호사실, 처치실, 탈의실 등에 부착 게시하였다.

환자 보호자 교육 및 홍보

정맥주사부위 고정방법 변경 및 주의사항에 대해 보호자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이동형 수액 걸이에 모두 부착하여 항상 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호자 교육자료
이동형 수액걸이에 부착

활동효과

- 표준화된 정맥주사 개방형 고정법 시행률은 일평균 92 %로 이로 인한 정맥주사 부위 이상조건(발적, 침윤 등)은 44%에서 20%로 24 % 감소하였다.
- 고정방법 변경에 따른 정맥주사 유지시간은 폐쇄형이 48.6시간 개방형이 83.1시간으로 평균 34.5시간 연장되었다.
- 정맥요법 시술 횟수는 대상 환아 중 폐쇄형 적용 시 총 48회, 개방형 적용 시 총 30회로 18회(37.5%) 감소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간호소요시간, 정맥주사에 필요한 진료재료 비용 등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 보호자 만족도 10개 문항 중 8개 문항에서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는 개선활동 전후 비교결과 총 15개 문항 중 12개 문항에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본 개선활동을 통해 정맥주사 전담 팀을 구성하여 집중적인 정맥주사요법 이론과 실기 교육을 시행하고, 훈련된 간호사를 근무조별 1명씩을 배치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정맥요법 시행 시 주사부위 고정방법을 직원의 아이디어를 통해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정맥주사 유지시간을 기존의 72시간에서 96시간으로(대한간호협회 정맥요법 가이드 라인에 따라 18개월 이상 소아의 경우 96시간까지 연장 가능, 본원 소아청소년과와 감염내과 자문 완료) 연장 가능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정맥주사 요법 관련 지식과 술기 역량을 위한 간호사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동영상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적용하여 반복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환아와 보호자, 간호사 모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향후 정맥주사 유지시간 연장 및 적용과 간호사 정맥주사 요법 관련 지식 및 술기 향상을 위한 교육을 원내 전체로 확산 적용하도록 하고자 한다



인하대병원과 송도고등학교가 함께 만든 공공예술 어두운 담장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다

쓱쓱 쓱쓱 붓이 지나간 자리에 알록달록 꽃이 피어나고...

롤러 지나간 자리에 일곱 빛깔 무지개가 뜨고...

삭막한 콘크리트 벽, 답답한 회색 벽이 사랑의 마음을 담은 붓질에 순식간에 환해진다.

글·사진 김시현 차장 / 공공의료사업지원단

INHA HAPPY PLUS

인하대병원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어두운 담장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벽화그리기 활동을 했다. 어둑어둑한 공원에 밝고 생기 넘치는 그림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웃음을 선물하고 싶었다.

인하대병원의 두 번째 벽화 그리기 활동은 2016. 9. 2~9. 3일 이틀동안 용현동 독쟁이 마을에 있는 우마쉼터에서 진행했다. 우마쉼터는 70년대까지도 운송수단이었던 소와 말이 쉬어가던 곳이다. 열심히 관리를 해도 공원이 쓰레기장이 된다는 마을 주민의 애길 듣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기로 했다.

송도고등학교 미술, 과학 동아리와 함께 석 달전부터 현장 답사, 그림 도안을 만들고, 주민들 인터뷰를 하고... 벽화를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주민들 인터뷰는 꼭 필요하다.

이번 벽화에 주민들의 기대가 남달라서 우리는 붓 터치 하나하나에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았다. 울퉁불퉁한 벽을 사포로 문질러 말끔히 다듬고 바탕색을 칠하고 그 위에 예쁜 그림을 그린다. 그림이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서로에게 칭찬과 박수를 보냈다.

주민들도 떡이며 음료수를 들고 와서 감사의 말을 하신다. 우르르 몰려와 구경도 하시고, 훈수도 두시고, 주민들이 정말 관심이 많았다.

주민들의 응원으로 더욱더 힘을 내어 고운 벽화가 완성되었다. 우리보다 주민들이 더 신나 하셨다. 또 언제 오냐고 연신 물으신다. 우리 집도 해 달라고 부탁도 하신다.

모두들 행복한 마음 한 가득 채워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먼지가 정말 심하게 났다. 하지만 사포질을 꼼꼼히 해야지 벽화가 곱게 그려진다. 사포질 후 밑바탕을 칠한다.



부모님 따라온 아이들까지 붓을 들었다.

모두들 열심이다. 낡은 정자도 노란 물감을 입히니 새롭다.



쓱쓱 쓱쓱 붓이 지나간 자리에 알록달록 꽃이 피어나고... 롤러 지나간 자리에 일곱 빛깔 무지개가 뜨고... 어둑어둑했던 벽이 이렇게 예쁘게 변신을 했다. 절로 노래를 흥얼거리게 된다.

용현동 '우마쉼터'로
구경오세요~
(인천 남구 용현동)



국내 15년 만에 발생한 콜레라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로 예방!

Q 최근 국내에서 15년 만에 콜레라가 발생하였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콜레라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A 콜레라는 수인성 식품매개질환의 대표적인 질병으로서 소장에 감염된 *Vibrio cholera*가 분비한 독소에 의해 수양성 설사와 구토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콜레라는 오염된 물과 날 것, 덜 익은 수산물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특히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집단 콜레라가 발생하며, 빠른 속도로 전염되게 됩니다.

단, 콜레라균의 감염경로는 호흡기가 아닌 소화기이므로,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만으로 전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 설사나 구토 중인 환자 옆에 있다면 손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환자를 격리, 환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물건을 소독하여 2차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콜레라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A 콜레라의 잠복기는 보통 2~3일(6시간~최대 5일)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통증 없는 물설사로 시작하여 급속히 설사량이 많아지며, 흔히 곧바로 오심, 구토가 나타납니다.

설사는 특징적으로 비담즙성, 회색, 점액 반점이 포함된 약간 혼탁한 용액으로 약간 달고 거슬리지 않는 냄새 등이 있어 흔히 쌀뜨물 변으로 불립니다.

감염 시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과 전해질을 신속히 보충해 주어야 하며, 때때로 예방적 항균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Q 콜레라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예방 백신이 있나요?

A 콜레라에 대비하기 위해 상하수도 시설 정비를 포함한 공중위생 시책과 함께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요구됩니다. 물과 음식물은 철저히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하고, 음식물을 먹기 전과 배변 후엔 30초 이상 깨끗한 물에 손을 씻도록 합니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콜레라 백신(Dukoral^{OR})이 있으나, 비용대비 예방 효과가 낮아 권장되지는 않습니다(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합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입국시 콜레라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필요하면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f. 대한약사회-의약품복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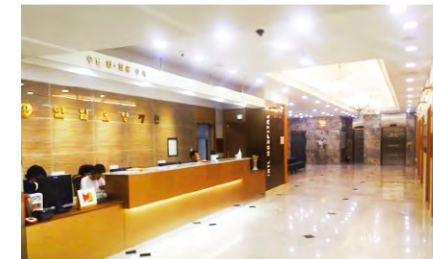
-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합니다.
-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3대가 살던 땅, 그곳에서 봉사가 시작되다 환자와 가족의 일상과 행복을 지켜주고 싶어

90년 전 할아버지가 정착하고 아버지와 내가 태어나 3대가 살던 집터인 그곳에 윤 중 병원장은 인일요양병원을 설립하였다. '인일요양병원'의 '인일'은 '인천 제일'이라는 뜻을 담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늘 환자를 마주한다.



인일요양병원 윤 중 병원장



분야별 최고의 젊은 의료진 구성

인하대병원과 같은 대형 종합병원이 최첨단의 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위해 그 역할을 한다면 이후 재활과 요양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사회는 노령화 사회에 직면하고 있지만, 요양 및 치료 의료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시스템으로 가정에 행복을 전하겠다고 윤 병원장은 전한다.

인일요양병원은 노인성 신경질환, 노인성 내과, 노인성 만성질환 등 분야별 젊은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고 재활치료 및 물리치료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에게 재활과 요양이 필요한 분을 위해 진료, 간호, 간병 등 전문 인력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24시간 상주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치료 위주로

많은 요양병원이 있으나 요양 위주여서 입원 및 치료가 이루어져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는 마음을 전하는 윤 병원장이다.

그래서 인일요양병원에서는 젊은 의료진들이 의욕을 갖고 환자 1:1의 재활치료 및 도수 치료를 도입하여 일상생활로의 많은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고령의 환자가 다수인 관계로 보호자 및 친지들의 병문안 및 방문의 빈도수가 잦을 수밖에 없고 또한 시일이 수개월 또는 수년간 입원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교통과 입지가 중요하고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고 편리해야 보호자들이 장기간 편안하게 부모님에게 효를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편안한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100세 시대 도래는 이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90년 전부터 3대가 뿌리를 내린 터에 자리를 잡은 윤 병원장, 그는 '건강과 웃음'은 가족의 사랑 안에서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일 게다. 환자와 가족의 일상과 행복을 찾아주고, 지켜주는 따뜻한 '인일요양병원'으로 한결같이 지켜주기를 소망한다.

◆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대로 699 ☎ 032-863-0051

인하대병원,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의료지원 공로 인정 받아 대통령 표창 수상



인하대병원은 지난 9월 2일(금), 인천 시청에서 지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대회 운영을 위한 의료지원의 공로를 인정 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인하대병원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공식지정병원으로서 운영 본부와 훈련시설에 의료진을 파견했고, 24시간 의무실을 대회 현장에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대회 운영과 선수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회 기간 중 선수들의 부상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응급진료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체계적인 환자 이송 시스템과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인

프라를 바탕으로 아시안게임 관계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며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우수성을 알리는 민간외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높은 평가가 더해졌다.

의료 인력의 지원과 더불어, 의무실의 주요 물품까지 물적·인적 자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은 인천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병원으로서 그 역량과 인프라를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아낌 없이 활용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공식지정병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한 결과가 오늘의 표창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하대병원은 변함없이 '환자의 안전'을 핵심가치로 한 병원으로서 인천의 크고 작은 행사를 도우며 '살기 좋은 인천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통합장기이식센터, 부자(父子) 간 간이식 수술 훈훈한 이야기를 전해



9월 20일(토), 아들의 간을 이식받아 수술을 진행했던 환자가 퇴원했다는 훈훈한 소식을 23일에 전했다.

해당 환자는 장보규(남, 45세) 씨로, B형 간염이 원인이 된 간경변이 진행되어 간 이식 수술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의료진의 소견을 들은 후 군인신분의 아들 장원석(23세) 씨의 간을 이식받아 수술을 진행했고, 한층 건강을 되찾은 모습으로 퇴원하게 되었다.

아들 장원석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아버지에게

간 이식할 뜻을 전달했으나, 아버지 장보규 씨는 한사코 거부해왔다.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최근 2개월 전 아들의 입대 이후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간 이식 수술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의료진의 소견을 들었다. 이후 인하대병원 통합장기이식센터의 도움으로 군부대 및 국립장기이식센터의 승인을 받아 수술을 결정하고 인하대병원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장보규 씨는 "아들의 간을 이식 받는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었고, 수술 전날까지도 너무나 미안했다. 하지만, 일상생활조차 견디지 못하는 몸 상태가 되어 더는 망설일 수가 없었다. 군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간 이식 수술을 결정해 준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다. 그리고 치료 과정 내내 친절함 태도로 최선을 다해준 인하대병원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고 퇴원한 소감을 밝혔다.

인하대병원 인천금연지원센터, 현판식 개최하며 지역의 건강증진 기여 다짐



인하대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인천금연지원센터(센터장 김규성 교수/이비인후과는)는 8월 30일(화), 현판식을 개최하며 지역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모 병원장을 비롯해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현판식 기념 촬영 이후 인천금연지원센터의 중간 성과 보고를 하는 자리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김규성 센터장은 "인하대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인천금연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건강의 시작인

'금연' 사업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금연 성공이 어려운 흡연자뿐 아니라, 직접 보건소를 찾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금연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료서비스디자인팀, 발대식 개최하며 환자중심 최우선 병원 선언

우리가 정말 환자의 생각을 알까?



2016년 8월 30일(화), 인하대병원은 의료서비스 도입 선포식 및 팀 발대식을 통해 환자중심병원으로서 거듭나는 혁신적 전환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롭게 출발하는 28명의 『의료서비스디자인팀』은 전문의 5명 포함 다양한 직종과 부서에서 역량이 뛰어난 직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안승익 진료부원장과 전상기 행정부원장의 활동 참여와 지원을 받으며 임원진과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 모두가 함께 이루어나가는 병원변혁의 주역이 될 것을 선서했다.

이어서 의료서비스디자인 Workshop을 통해 환자관점에서 관찰하고 아이디어 및 개선을 도출하는 방법을 배우고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지면 28p 참조)

환경보건센터, 인천 중구 보건소와 업무협약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임대현,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인천 중구 지역 초등학생의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위험인자를 규명하고자 인천 중구보건소와 지난 8월 29일(월), 알레르기 질환 검진 위탁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는 인천 중구보건소에서 운영예산을 지원받아 오는 9월부터 인천 중구

관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설문조사, 검사, 예방관리 교육을 시행한다. 학생 개인별 검사 결과를 보건교사와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알레르기 질환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 임대현 센터장은 "알레르기 질환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올바른 진단을 통해 원인물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회피하는 것"이라며, "고위험군을 미리 찾아내고 질환을 예방·관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하대병원, '제3회 Solution-finder 컨설팅(바이오산업)' 개최



2016년 9월 1일(목) 오후 3시,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장에서 인천시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하대병원, 인하대학교와 공동으로 '바이오산업 솔루션 파인더 컨설팅' 행사를 개최하며 바이오 선도기업들과 함께 '인천 바이오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동원해 인천시와 인하대학교,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인천시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로 3회째 진행되고 있는 '솔루션 파인더 컨설팅' 프로그램은 인천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지자체, 대학, 기업지원기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매달 산업별 각계 전문가와 관련 기관, 기업인들을 초청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1, 2회 행사를 통해 물류, 항공산업 분야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향후 뷰티, 첨단자동차, 로봇, 녹색기후금융, 관광 산업 분야 등에 대해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하대병원 - 인하대 공과대학 공동 개발 지능형 의료안내 로봇 시험 가동



인하대병원은 미래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인하대학교 공과대학과 공동 개발한 지능형 의료안내 로봇을 지난 9월 2일(금) 시험 가동했다.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 김덕환 교수가 인하대병원 외과 최선근 교수, 인하대병원 전산운영팀 및 하드웨어 제작사 엘리비전과 함께 의·공학 융합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한 이 로봇은 병원 이용 안내에 대한 설명, 진료예약과 조회,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 간호기록 등 의무기록 사본 발급과 조회 기능을 갖추고 있다. 현재는 시험가동의 단계로, 상용화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란 정부 관계자, 인하대병원 방문

의료·연구·교육분야 상호 협력관계 논의



인하대병원은 지난 9월 2일(금), 이란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향후 협력관계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란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 부의장인 세예드 사자드 모라베지(Dr. Seyyed Sajjad Morawej)와 매니저 아프진 케살리(Mr. Atshin Khesali)가 방문해 인하대병원의 암 병동, 국제진료센터, 검진센터 및 의생명 연구원의 진료설비, 시스템, 서비스 등을 직접 둘러보며 관련 사항에 대한 대답을 나누는 행사가 되었다.

인하대병원 뇌혈관센터, '전문의 연수교육' 성료



인하대병원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권역센터장 정한영 교수)는 지난 9월 19일(월)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권역 뇌혈관센터 '전문의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급성기 뇌졸중의 진단과 치료, 예방 등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인천 권역 내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50여 명이 참여하여 뇌졸중에 대한 종합적인 영역을 다루는 정보 교류의 장이 되었다.

뇌혈관센터장 현동근 교수는 "인천권역의 뇌혈관질환 골드타임 사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 및 인하국제의료센터, 영종도 내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하대병원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 및 인하국제의료센터(센터장 신호철)는 9월 21일(수), 영종도 내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하늘문화센터와 응급의료 및 건강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상호 협력관계를 다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하대병원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는 영종도 내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하늘문화센터 회원 및 직원의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한 진료지원을 약속했다.

신호철 센터장은 "앞으로도 양 기관은 인적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진료지원 체계 강화 및 상생을 위해서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지정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선정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선정되었다. 인하대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가 육성할 필요성이 큰 분야 혹은,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가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전문진료 분야별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육성하는 사업과 관련해, 호흡기 전문진료 분야를 담당하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 지정 운영기간은 3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지면 16p 참조)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2016. 7. 25



출연: 감염내과 이진수 교수
프로그램: 후생신보
내용: 감염병 치료의 최신지견

2016. 7. 26



출연: 이비인후과 김영호 교수
프로그램: 디지털타임스
내용: '황궁우주 의학' 주도권 갖자

2016. 7. 30



출연: 직업환경의학과의 임종환 교수
프로그램: MBC 뉴스데스크
내용: 인기 모바일 영상제 발암물질 검출

2016. 8. 1



출연: 예방관리센터 이원경 교수
프로그램: KBS (뉴스 9)
내용: 열대야에 수면시간 절반 '뚝' 꿀잠 비결은?

2016. 8. 3



출연: 내분비내과 김소현 교수
프로그램: 헬스조선
내용: 당뇨병, 전 단계부터 관리하세요!

2016. 8. 4



출연: 심장내과 박상돈 교수
프로그램: 경기일보
내용: 심장질환, 이것이 궁금하다!

2016. 8. 10 / 8. 17



출연: 정신건강의학과 김원형 교수
프로그램: 중구청 인터넷 방송 (건강을 탐하다)
내용: 거식증 & 불면증

2016. 8. 17



출연: 호흡기내과 류정선 교수
프로그램: 다음 '스토리 펀딩'
내용: 금연

2016. 8.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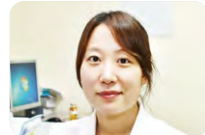
출연: 신경외과 윤승환 교수
프로그램: 중진군정 소식지 <갈매기>
내용: 척추 재수술,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2016. 8. 25



출연: 피부과 신경현 교수
프로그램: 티브로드 인천방송
내용: 타투의 부작용 및 시술시 주의사항

2016. 8. 29



출연: 안과 정지원 교수
프로그램: 남구청 소식지 (나이스미추)
내용: 건성안 원인과 치료

2016. 8. 30



출연: 혈액종양내과 이원규 교수
프로그램: 경인일보
내용: 일반인을 위한 알기 쉬운 혈액암 이야기

Info Desk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유방암 환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방암 환자의 식이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림프부종 관리 유방암 환우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신청) 	11월 9일(목), 12월 8일(목) 오후 2시 ~ 4시 30분	3층 예방센터 회의실	유방·갑상선외과센터 (032)890-2560~1
대장암 환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장암의 이해 대장암 환자의 영양 -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 	홀수달 넷째 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3층 2세미나실	암 진료 상담실 (032)890-3600, 3638
암 환자 음악 요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암 환자를 위한 음악요법(우쿨렐레 배우기) - 희망하시는 분은 암 진료 상담실로 문의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층 1세미나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 무료검사 및 금연/영양 상담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4시	신관3층 예방관리센터 간병술기실	예방관리센터 032)890-2135, 21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뇌혈관질환 후 예방(심뇌재활센터 김창환 교수) 	10월 4일(화) 10:00~11:00	강화군 보건소 2층 교육실	예방관리센터 032)890-21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생활실천 자가관리법(예방관리센터 신나라 간호사) 	10월 25일(화) 14:00~15:00	연수구보건소 2층 대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상지질혈증의 이해(심혈관센터 권성우 교수) 	11월 9일(수) 14:00~15:00	동구 보건교육실 2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혈압 당뇨 집중교실(심뇌재활센터 좌경림 교수) 	11월 30일(수) 10:00~11:00	계양구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		

교육 안내

강좌명	제목	일정	문의전화	비고
의료인과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인 신규과정 의료인 갱신과정 일반인 과정 	홈페이지 참조 (www.inha.com)	예방관리센터 032-890-2130, 2142	등록비는 홈페이지 참조
의료인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AC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인 전문과정 		인사교육팀 032-890-2887	

전시회 및 공연 안내

전시일정	제목	작가	장소	문의전화
2016. 09. 23 ~ 10. 13	이남희 개인전	이남희	2층 갤러리	홍보팀 032-890-2603
2016. 10. 14 ~ 11. 03	2016년 풍경사진전	김용환, 명준옥, 강영미, 김재선		
2016. 11. 25 ~ 12. 15	시연사모전	김경선 외 6인전		

파랑새 소식_ 교육일정은 건강교실 안내 참조

■ 지난 행사

- 9월 지역 팀별 모임

■ 다음 행사

- 10월 09일: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여의도 공원)
- 10월 13일: 파랑새 आयु회(파주 가막산/병원 로비 9시 출발)
- 10월 19일: 핑크리본 공개강좌(인하대병원 3층 강당)
- 12월: 파랑새 송년회(날짜, 장소 미정, 추후 공지)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 ▶ 문의 유방·갑상선외과센터 ☎ 032-890-2560
- ▶ 홈페이지 www.inha.com → 유방·갑상선외과센터
- ▶ 카페 cafe.daum.net / inha_bluebird

암진료상담실 : (032)890-3600

★ : 사이버나이프센터 □ : 유방·갑상선외과센터 ■ : 폐암센터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08:30~09:30	갑상선암	내분비내과	남문석	갑상선, 당뇨병, 뇌하수체	월, 화, 목	화	암 대학제 통합진료 : 화, 수요일 오후	
		김형길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수, 금*	월, 수	서비스진료			홍성빈	갑상선, 내분비, 골다공증, 당뇨병	목, 금	월, 수		
		관계숙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화				김소현	갑상선, 당뇨병, 내분비, 비만	월, 수, 금	화		
	외과	방병욱	*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월, 화	금	암 대학제 통합진료 : 목요일 오후		외과	김세중	* 내분비외과(갑상선암), 유방	(수□), (금□)	(월□), (수□)	*13:30~15:30	서비스진료
		신석환	위암, 소화기외과	월, 목	월				최윤미	갑상선수술, 소아외과	화, 수	금		
		허윤식	위암, 소화성 궤양	화, 목	화, 목				박신영	내분비외과, 유방	월	금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이문희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이비인후과	임재열	* 갑상선, 두경부종양, 음성장애	목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화★), (목)			최정석	* 무통중편도수술, 소아이비인후과, 갑상선, 두경부종양, 후두 및 음성, 침샘 및 구강질환	월, 화, 금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해의학과	현인영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화, 목, 금	화, 목, 금		
대장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 대장암, 위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목	*08:30~09:30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암 대학제 통합진료 : 목요일 오후	
		김형길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대장질환	수, 금*	월, 수	서비스진료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목)		
		관계숙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화			유방암	외과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월□)
방병욱	*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월, 화	금	암 대학제 통합진료 : 목요일 오후	박신영	내분비외과, 유방	월			금				
김경래	대장암, 대장질환, 항문질환	월, 수	수		종양내과	이문희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외과	최선근	* 대장암, 항문암, 직장암, 항문암, 소화기외과, 대장암	화, 목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이문희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목)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화★), (목)		부인암	산부인과	이병익	종양학, 불임, 폐경기	수, 목, 금	월	암 대학제 통합진료 : 월 오후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송은섭	부인과종양	월 (수□), (금□)	수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황성욱	* 종양학, 복강경	월, 화	화, 목			
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진우	*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화, 수, 목	목 (▲)	▲간암클리닉	종양내과	이문희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암 대학제 통합진료 : 월 오후		
		진영주	* 간암, 만성간염, 알코올성간질환, 지방간	월	화, 수,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안승익	췌장암, 담도암, 간담체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목)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금	수		비뇨기암	비뇨기과	박원희		중앙, 전립선질환, 요실금	화, 목	화			
신우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월	월, 목				윤상민	중앙, 결석, 신이식	월, 화, 금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종양내과	이문희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두경부암	이비인후과	임재열	* 두경부종양, 갑상선, 음성장애	목	화, 목		
체·담도 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든행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화		종양내과			최정석	* 두경부종양, 무통중편도수술, 소아이비인후과, 갑상선 후두 및 음성, 침샘 및 구강질환	월, 화, 금			
		정 석	* 췌장암, 담도암, 간담체외과, 이식외과	월, 금	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목)	
		안승익	췌장암, 담도암, 간담체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금	수		폐암	호흡기내과	이흥렬	* 폐종양,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화, 목 (금■)	월, 금			
신우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월	월, 목				곽승민	* 폐종양,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월, 화 (수■), 금	수, 목 (1, 3주)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류정선	* 폐종양,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월 (화■), (목■)	(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화★), (목)		중양스트레스 클리닉	정신건강의학과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목*□)	*13:30~15:30	유방·갑상선외과센터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임파부종 클리닉	재활의학과	김영욱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자보조기	목		월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피부암	피부과	최광성		피부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 조갑질환, 탈모	월, 화, 금
폐암	호흡기내과	이흥렬	* 폐종양,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화, 목 (금■)	월, 금	피부암					피부과	신정현	피부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 색소질환, 피부미용	수, 금
		곽승민	* 폐종양,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월, 화 (수■), 금	수, 목 (1, 3주)		종양내과	이문희				변지원	피부암, 색소질환, 피부미용외과, 피부노화관리	목
		류정선	* 폐종양,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월 (화■), (목■)	(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목)
흉부외과	흉부외과	남해성	폐종양, 폐결절, 폐암 조기검진	수, 금	(화■),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정택	폐질환, 심장, 혈관, 정맥류	월, 금			척추종양	신경외과		윤승환	* 척추종양, 사이버나이프,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화, 목	화	
		윤용한	폐암, 식도암	목	월, 목				연부조직 및 골육종	정형외과	강준순	골종양, 인공관절, 상지, 고관절, 슬관절, 관절염	월, 수	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화★), (목)	연부조직 및 골육종	정형외과					이동주	* 종양, 상지, 수부, 관절염	월, 목, 화	화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종양내과	임주한			권대규	* 중앙, 소아정형, 뇌성마비, 외상	화	월,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목)		
흉부 관련암	흉부외과	김정택	흉선암	월,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윤용한	폐암, 식도암	목	월, 목		소아암	소아청소년과	김순기	혈액, 중앙, 내분비, 비만, 성장	수, 금	월, 화		
		김영삼	* 폐암, 식도암, 흉선암	(수■)	수,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인하대병원의 특별한 '내일'을 만드는 가치기부

♣ 인하대병원의 발전을 후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 후원해주신 금액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병원 이용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후원방법

- ① 약정서 작성 : 방문,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연락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② 납부방법 : 일시납 혹은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입금 : 하나은행 748-910002-39804 (예금주 : 인하대병원)
 - ▶ 자동이체(CMS) :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의 지정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서비스입니다(정기출금일 : 15일, 25일).

- ▶ 급여공제 :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교직원에 한함).
 - ▶ 방문납부 : 인하대병원 지하2층 대외협력팀
 - ▶ 문의사항 : 공금하신 내용은 대외협력팀으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EL : 032)890-3392 FAX : 032)890-3061 e-mail : hc@inhauh.com
- 인하대병원 대외협력팀**



보건복지부
재인증획득



국제의료기관
재인증획득



신뢰받는
착한브랜드



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지역과 인간을 위한 행복한 도약을 시작합니다

지역사회 건강 지키는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_ 365일 전문의 상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_ 심뇌혈관질환 골든타임 사수

외래전문질환센터_ 여성전문센터, 척추센터, 통증센터, 혈관센터, 뇌신경센터

환자가 가장 안전한 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_ 대학병원 유일, 간병부담 덜어주는 전문 입원간호서비스

국제의료기관(JCI) 인증_ 국내 최초, 의료원 전 부문 3회 연속 성공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_ 인천지역 최초, 2회 연속 성공



World Best Safety, Global INHA



인하대병원